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40호 【루계 제24388호】 주체102(2013)년 12월 6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 받들어 이 땅우에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자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의 생활력 힘있게 과시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올해신년사를 받들고 승리자의 긍지와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선 전국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 모범기대창조운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국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최첨단돌파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강화발전시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혁신하고 기계설비들과 생산공정을 최첨단기술에 기초하여 갱신하고 개건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90여개의 공장, 기업소, 직장들이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칭호를, 190여개 공장, 기업소들과 250여개의 직장, 5 900여개의 작업반들과 2만 4천여대의 기대들이 한급높은 26호모범기대칭호를 쟁취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공화국창건 65돐과 전승 60돐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올리는 조직정치사업을 근기있게 벌리였다.

직총중앙위원회 해당 부문 일군들은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실현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각급 직맹조직들에서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집행을 짜고들어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빛나고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와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일군들은 또한 뜻깊은 올해에 3 1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2만여명의 직맹원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과 직맹일군들이 2만 7천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기술혁신전시회, 기술혁신성과전시회에 출품하여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평양시와 평안북도, 황해북도를 비롯한 각 도직맹위원회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작업복을 입고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기대공들과 기대정비도 함께 하면서 쉴참에는 장군님의 명언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나의 일터와 나의 기대, 나의 제품을 보라!〉,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애국자들이 웨치는 심장의 구호이다.》와 회상실기 《몸소 26호선반을 돌리시며》에 대한 명언해설모임과 회상실기연구발표회도 자주 조직하여 그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설비관리분야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모범기대창조운동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떨치도록 하였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 모범기대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하여 수천t의 강재를 증산함으로써 은하과학자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3기계직장의 청년호선반을 비롯한 30여대의 사적설비와 중요설비들을 본보기로 만들고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형공작기계직장의 문형후라이스반을 비롯한 수십대의 기계설비를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대치차가공 등 인민경제 중요단위들에서 절실히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급수뽐프날개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원산청년발전소에서는 발전기유압뽐프전동기 단상보호장치를 도입하여 발전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과학적인 운영방식을 받아들이는데 성공하였다.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는 7차륜선반을 비롯한 여러대의 중요설비들을 현대적설비로 기술개조하여 화차생산과 수리에서 은을 내고있으며 정주기관차대, 단천청년전기기관차대를 비롯한 철도운수부문 로동계급도 모범기대창조운동의 불길을 계속 지펴올리고있다.

콤퓨터에 의한 갑문운영감시지령체계를 세워 경영활동의 정보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하고 2호회전다리의 현대화공사도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진행한 서해갑문사업소와 에타놀생산공정과 가소제생산공정의 콤퓨터화를 실현한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한단계 추켜세우는데서 뚜렷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의 콤퓨터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만족을 드리였으며 그날의 영광을 가슴깊이 새기고 맛있고 영양가높은 기초식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갖가지 빵과 당과류, 청량음료 등 식료품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하여 자기 단위를 상징하는 제품들로 당당히 자랑하고있는 선흥식료공장에서는 올해에도 현대화의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탄산단물생산공정의 무인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였다.

강계고려약가공공장과 강계고려약공장에서는 추출 및 농축생산공정의 무균화를 실현하였으며 청진기초식품공장에서는 된장, 간장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대홍단감자가공공장에서는 종합조종실에 의한 생산공정의 감시조종체계를 받아들여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였다.

지난 6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기술개건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주신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창성식료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과류와 탄산음료생산공정과 초미분쇄공정의 현대화와 모든 생산공정의 무균화를 실현하여 갖가지 식료품을 더 질좋게 생산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백두산들쭉가공공장, 두단오리공장, 연탄식료공장에서도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모범기대창조운동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빛나게 관철해나가고있다.

문덕수산사업소, 라진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수산부문의 로동계급도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간직하고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어구와 설비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수산물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의 불길속에서 대동강발전소,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강계기초식품공장, 개선청년공원관리소, 빙상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연신직장,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유압기구직장을 비롯한 90여개의 단위들이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칭호를 쟁취하였다.

전국각지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명흥숙

최첨단돌파의 불길이 안아온 자랑찬 성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원자힘현미경 연구제작

온 나라에 과학기술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번지는 속에 우리 인민을 기쁘게 하는 첨단돌파소식이 또 전해졌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세계적수준의 원자힘현미경을 연구제작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쳐가시는 과학기술중시의 새 력사와 더불어 최상최대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가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부문이 최첨단돌파의 앞장에 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부문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높은 수준에 오른 분야들이 적지 않은데 거기에 계속 힘을 넣어 세계적패권을 쥐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재료과학부와 과학실험기구연구소, 전자재료연구소의 교원, 연구사들이 연구제작한 원자힘현미경은 원자힘검측계통, 나노이송계통, 전자조종계통, 방진계통 등으로 구성되여있으며 1nm급의 분해능으로 시료의 표면상태를 관측하고 조작할수 있는 첨단나노측정설비이다.

이 현미경은 주사굴현미경과 함께 현시대 과학기술발전의 핵심기초기술의 하나인 나노기술연구에서 눈과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관건적인 설비로서 시료와 탐침끝의 원자들사이에 작용하는 미세한 호상작용힘을 측정하여 표면상태를 관측하는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원자힘현미경으로는 원자척도의 높은 분해능을 가지고있지만 전기전도성을 가지지 않거나 전기전도특성이 나쁜 시료에 대한 표면관측을 할수 없는 주사굴현미경의 원리적인 제한성을 극복함으로써 전도성시료는 물론 비금속시료나 생물시료도 분석할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집단이 이미 주사굴현미경을 개발한데 이어 원자힘현미경을 새로 연구제작함으로써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와 나노재료 및 나노제품개발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나라의 나노기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자신만만한 배짱과 담력, 야심을 가지고 첨단급의 원자힘현미경을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개발할 대담한 목표를 세웠으며 연구사업에 피타는 사색과 헌신적인 노력을 깡그리 바치였다.

재료과학부 교원, 연구사들은 대학일군들의 적극적인 지도방조밑에 과학실험기구연구소, 전자재료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창조적으로 협조하면서 nN급의 극미세힘검측기술과 nm급의 정밀이송 및 주사기술, 미소신호수감 및 처리기술, 정밀기계가공기술, 응용광학기술, 방진기술, 콤퓨터조종 및 화상처리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이 종합적으로 응용된 원자힘현미경개발에서 제기되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짧은 기간에 첨단과학연구설비를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연구집단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각이한 기능과 특성을 가지는 측정설비들을 일체화하여 기구의 성능과 실용성을 종합적으로 높여나가고있는 나노측정분야에서의 세계적추세에 맞게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서로 다른 측정원리에 기초하여 성능이나 관측정보제공면에서 서로 보충하는 관계에 있는 원자힘현미경과 주사굴현미경을 하나로 결합하여 종합적인 주사탐침현미체계를 우리 식으로 개발하는데 또다시 단번성공하였다.

이번에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세계적수준의 원자힘현미경을 연구제작하고 주사탐침현미체계를 구축한것은 최첨단과학기술의 새로운 령역을 개척하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육과학연구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귀중한 성과로 된다.

당과 조국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은 최첨단돌파전에 떨쳐나선 온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최근년간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하여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혁혁한 성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첨단을 돌파하며 당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억세게 떠받들고있는 주체과학기술의 면모와 양양한 전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축산물생산을 늘이는데 힘을 집중

자강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지만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자강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깊은 사랑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서 축산물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례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지난 6월 강계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의 일군들에게 축산기지들을 추켜세워 어버이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강계돼지공장, 홍주닭공장을 비롯한 자강도의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이 큰 은을 낼수 있게 내각에서 잘 도와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도의 일군들은 축산물생산을 늘이는것이 인민생활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어버이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목장관리국과 축산기지들의 일군들은 수십만알에 달하는 우량품종의 닭, 오리종금알을 현대적인 닭공장, 오리공장들에 실어들이기 위한 수송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이미 수백마리의 종자돼지를 확보하여 고기생산을 늘일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내각과 농업성의 일군들이 내려와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의 먹이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들을 따라세우고있다. 농업성에서는 기술자들을 도의 닭공장들에 내려보내여 여러가지 대용먹이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주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대형화물자동차들을 동원시켜 다음해 고기와 알생산에 요구되는 먹이수송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고있다.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의 물질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는데 맞게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강계돼지공장의 일군들은 과학적인 종축체계를 세워놓고 새끼돼지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돼지사양관리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다음해 비육돼지 마리수를 부쩍 늘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흥주닭공장의 알생산실적이 계속 뛰여오르고있다. 공장의 사양공들은 먹이와 물주기, 온습도보장을 비롯한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알생산을 계속 늘이고있다. 강계오리공장에서도 다음해 고기생산을 훨씬 넘쳐 수행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토대가 마련되였다.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서는 자체로 꾸려놓은 단백먹이기지들에서 많은 대용먹이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도에서는 축산물생산이 늘어나는데 따라 주민들에 대한 고기와 알공급체계를 보다 정연하게 세우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

평양도착

【평양 12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되였다.

전례없는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대강습은 주체건축분야에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건축미학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최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웅대한 구상과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마련된 대강습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국의 건축설계, 시공, 건재, 감독단위 일군들, 건설부문과 련관된 무력기관, 과학기술, 대학부문과 지방의 당, 행정일군들이 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구호판이 세워져있는 평양역구내는 대강습참가자들을 맞이하는 환영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환영곡이 울려퍼지는 속에 참가자들을 태운 렬차들이 평양역에 들어섰다.

김기남동지, 곽범기동지, 로두철동지와 김인식 내각부총리, 당, 무력기관,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자들을 맞이하였다.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념원인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며 뜻깊은 대강습까지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수도시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손을 흔들며 창조와 혁신으로 건설장마다에서 위훈을 떨쳐온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이번 대강습을 통하여 우리 당의 독창적이고 인민적인 건축미학사상과 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기술실무수준을 한계단 높임으로써 건설의 최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기여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올해 간석지건설계획을 끝냈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에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련일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련합기업소의 간석지건설자들은 완강한 공격전으로 백수십만㎥의 토량과 막돌을 운반하여 수천m의 제방을 쌓았다. 그리고 5만 6 000㎥에 달하는 장석공사와 함께 1호, 2호, 4호제방보강공사와 배수문공사를 위한 가물막이공사를 끝냈다.

그리하여 자기들앞에 맡겨진 년간 간석지건설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련합기업소의 간석지건설자들은 년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3호제방공사를 적극 내밀며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홍건도간석지건설에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년초부터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계획수행기간 이들은 안산지구와 석화지구에서 간석지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맞게 현장지휘부의 역할을 높여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기동적으로 풀어나갔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들끓는 전투장들에 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호소문의 사상과 정신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간석지건설자들을 《마식령속도》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혁신의 불길은 안산지구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다사,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와 련합기업소아래 신의주부재공장, 선박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정초부터 힘찬 돌격전을 벌려 1 100여m에 달하는 1호제방성토공사를 끝낸데 이어 제방보강공사와 장석공사를 적극 내밀었다. 그리고 설계와 시공의 요구에 맞게 1호제방공사와 2호제방 1차막이공사를 완공한 기세로 2호제방바깥쪽 장석쌓기공사에 힘을 넣어 보강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이들은 배수문공사를 위한 250여m의 가물막이공사를 끝낸데 이어 지난 11월 21일 10만산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3호제방성토공사에 진입한지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수백m의 제방을 날바다로 내미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석화지구에서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석화, 곽산,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의 간석지건설자들은 흙과 막돌, 장석생산을 위한 도갱굴진을 앞세우고 대, 중, 소발파를 련속 들이대면서 공사속도를 높여 4호제방성토공사와 제방바깥쪽 장석쌓기공사, 보강공사를 완공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곳 간석지건설자들은 3호제방배수문공사를 위한 300여m의 가물막이공사를 끝낸 기세드높이 3호제방성토공사에 진입하여 짧은 기간에 수백m의 제방을 쌓는 성과를 거두었다.

계획수행기간 막돌수송을 맡은 다사, 청강기계화사업소의 일군들과 운전사들은 수리기지를 현장에 전개하고 수리정비를 깐지게 하여 자동차와 굴착기를 비롯한 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지금 이들은 능률적인 막돌부림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량의 흙과 막돌, 장석을 실어나르며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계획수행기간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사회주의증산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 전투장들마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계속 고조시켰다.

당위원회에서는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간석지건설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적극 개선하는데도 큰 힘을 넣었다.

홍건도간석지건설전투현장에 달려나온 국가검열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일군들은 필요한 연유와 자재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간석지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련합기업소의 간석지건설자들은 홍건도간석지건설에서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다시한번 힘있게 떨칠 불굴의 기상안고 겨울철조건에서도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오늘도 사람들 누구나 각별한 정을 담아 부르는 호칭이 있다.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정녕 이 부름은 위대한 장군님 따라 만난시련을 헤쳐온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백전백승의 기치였고 아름다운 희망의 표대였으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였다. 사랑하는 조선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업적이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이 열렬하고 진정에 넘친 인민의 목소리에 뜨겁게 담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이 하나하나 눈부신 현실로 꽃펴나는 내 조국의 천지개벽은 이 나라 인민들에게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더욱 강렬하게 안겨주고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호 당보에 자나깨나 뵙고싶은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의 사진문헌을 삼가 모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애국의 세계의 시작은 어디이고 그 끝은 어디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애국을 노래할 때 이 나라 인민은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서부터 칭송의 선률을 삼가 엮는다.

애국은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참다운 애국관을 인민의 가슴속에 심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음성, 그 손길, 그 발자욱이 내 나라의 산과 들, 거리와 마을 그 어디에나 어려있다.

조국, 그것은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전부였다.

애국, 그것은 우리 장군님의 생활 그자체였고 한평생이였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을 지으시던 그 열정으로, 두그루 잣나무를 소중히 심으시던 그 사랑으로, 룡남산언덕에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의 맹세를 다지시던 그 신념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한평생을 조국을 위하여 깡그리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드시여 우리 장군님께서 몸소 건설자가 되시여 와산동—룡성사이 도로확장공사장에 소중히 바치신 구슬땀에 비낀 그이의 애국의 뜻은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어은동군사야영의 나날 아, 세계가 부러워 너만을 바라보게 내 너를 더 높이 안아올리리 조선아, 조선아! 너는 나의것 나는 너의것이라고 불같은 애국의 마음을 시어에 담아 토로하시며 애국의 의지를 더욱 굳히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 나날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리도 력력히 새기신 애국의 자욱은 오늘도 부강번영의 꽃다발우에 찬연한 빛을 뿌린다.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시던 어버이장군님을 인민은 잊지 못하고있다.

열렬한 애국으로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하나의 창조품을 보시고도 《내 나라》라는 글부터 쓰시고 머나먼 외국방문을 마치시고 조국땅에 첫 자욱을 디디실 때에도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정깊이 부르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조국을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그이께서는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에서 뻐꾹새 노래하는 산중초소, 울창한 숲을 보시면 군인들의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그리도 소중히 안아보시며 애국자부대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였다.

살구나무, 감나무들이 우거진 마을과 중대병영들을 보시면 그리도 기쁘시여 살구나무동네, 감나무중대라고 정답게 불러주신 우리 장군님의 열렬한 애국의 뜻 인민의 심금을 한없이 울린다.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조국은 곧 사랑하는 인민이였고 인민을 위한 일은 곧 그이의 애국이였다.

오늘도 이 땅의 남녀로소가 뜨거운 격정에 넘쳐 칭송하고있는바와 같이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우리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을 다 합치면 오직 인민뿐이다.

눈보라강행군길, 삼복철강행군길, 초강도강행군길, 심야강행군길…

그 길이 없었다면 사회주의조국도 인민도 없었을것이라는 만사람의 토로는 실로 당연한것이다.

민족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험난한 그 길이 지구를 몇바퀴 돌고도 남을 거리와 맞먹는 길이였건만 자신께서는 현지시찰한 단위가 얼마나 될것인가 하는것을 생각해본적도 없고 현지시찰을 명예나 평가를 바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하시며 우리 조국이 부강하고 우리 인민이 잘살게 되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말씀 오늘도 열렬한 애국의 세계를 전하며 뜨겁게 울린다.

어느 한 기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간고한 시련을 열렬한 애국으로 부셔버리며 헤쳐오신 나날을 추억하시며 말씀하시였다.

인생이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한생이다. 우리의 인생이란 다른것이 아니다.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더 헌신분투하겠다. …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로 이것이 우리 장군님께서 자나깨나 온넋을 그토록 불태우시며 한평생을 깡그리 바치신 사상정신적지주였고 삶의 좌표였으며 그이의 생의 전부였다.

혁명가로서, 위인으로서 자신의 삶과 투쟁의 궤도를 조국과 인민 바로 이것과 하나로 이어놓으시고 그토록 고결한 헌신의 세계를 펼치신 바로 여기에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이 있고 그이의 생애의 고결함이 있는것이다.

그처럼 열렬한 애국을 그리도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아버렸을 엄혹한 역경을 과감히 부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두번다시 구원해주시였고 우리 인민이 대대손손 긍지높이 살아나갈수 있는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시고 태양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시는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뜻깊은 12월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한평생을 숭엄히 돌이켜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뜨겁게 심어주신 **김정일**애국주의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우리 장군님처럼 조국을 사랑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귀한 실천으로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에서 우리는 장군님의 영생의 메아리를 듣고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제2의 애국가인 《조국찬가》는 그대로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감사의 노래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야말 조선의 아들딸들의 충정의 맹세이다.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이 고귀한 부름을 영원한 애국의 기치로 높이 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또 한분의 위대한 애국자이신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피와 살, 목숨도 기꺼이 바치며 애국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을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문명하고 부유한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울 억척의 신념과 의지가 12월의 하늘가에 불길처럼 타번진다.

본사기자 김 인 선

끊임없이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11월

백두산밀영고향집추억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해질 때마다 우리 인민의 마음은 저 멀리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 달린다.

이 땅 삼천리가 시작되는 곳, 이 나라의 천만산악을 다 안고 뜨락에 넘치는 따뜻한 온기로 천리수해를 덮혀주는 백두산밀영고향집,

위대한 선군태양을 안아올려 백두의 담력과 기상을 안겨주고 키워준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떠나 이 땅에 새겨지는 자랑찬 력사와 전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두산은 나의 고향입니다.》

백두산밀영고향집, 조용히 불러보느라면 위인의 비범한 성장을 소중히 품고 설레이던 밀림의 장중한 교향곡이 들려오는듯 싶다. 백설의 광야에서 풍찬로숙하며 궂은 눈에 군복은 마를날 없었건만 환희롭던 그 2월에 내리던 눈이 축복의 꽃보라인 듯 싶어 《백두광명성만세!》를 목청껏 부르던 투사들의 모습도 어리여온다.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포연에 절은 옷을 입고 군대밥을 드시며 돌격구령소리와 함께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첫시작부터가 남다른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소리를 자장가로, 항일전장의 총포소리를 노래처럼 들으시며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한몸에 지니시고 폭풍과 시련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영웅의 기개를 자래우시였다.

사시장철 흘러내리는 소백수의 줄기찬 흐름은 백두의 정기를 심어주었으며 하늘을 치받는 흰눈덮인 메부리는 천만대적도 한손에 거머쥐고 단숨에 쳐갈기는 억센 기상을 안겨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신념이 강한 투사들의 품에서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진리를 배우시였고 대가 바르고 배짱이 센 품성을 지니시였다.

눈덮인 백두밀림에서 탄생하시여 사나운 눈보라소리를 혁명의 교향곡마냥 들으시며 성장하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백두산에 대한 그이의 추억은 남다른것이였다.

오래전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책갈피속에 추억깊은 이런 내용의 글발을 남기시였다.

…

눈내리는 아침이면 나의 마음이 끝없이 달리는 곳이 있다. 그곳은 조국의 아침이 시작되는 백두산이다.

지금쯤 아마 백두산은 장설로 뒤덮였을테지. 천고의 밀림, 총포탄이 울부짖던 결전장들도 하얀 눈속에 하루의 시작을 서두르며 새벽을 맞이하고있을테지.

아, 백두산!…

이렇듯 백두산을 늘 마음속에 안고 사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를 때면 언제인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찾으시여 령하 수십℃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속에서 눈보라길우에 뜻깊은 자욱을 찍으시던 잊을수 없는 사연이 되새겨진다.

선렬들의 붉은 피가 뜨겁게 슴배인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붉게 물들여주었고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 혁명가의 강의성과 신념을 검증하며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새겨온 백두의 흰눈길을 걸으시던 우리 장군님의 심정이 그때 얼마나 뜨거우시였으랴.

백두산에 대한 사랑을 곧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간직하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그이께서는 백두산밀영고향집 소백수의 그 아름다운 설경처럼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해 눈내리는 겨울이면 더욱 결연히 현지지도의 길에 나서시였다. 소스라치는 위험도 가벼운 웃음으로 물리치시고 눈덮인 험한 산야를 넘나드시며 백두령장의 불굴의 위인상을 온 세상에 더 높이 떨치시였고 인민을 위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자욱을 뜨겁게 찍으시며 력사의 갈피갈피를 수놓으시였다.

그래서 백두산밀영고향집에 내리는 한송이의 하얀 눈꽃을 생각해도, 그리움에 젖은 12월의 수도의 밤거리를 거닐면서도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생각으로 심장을 끓이고 고향집의 설경과도 같이 희한하게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에서 후더워지는 마음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 인민이다.

선군태양의 위업을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얼마전 삼지연군을 찾으시여 력사에 길이 빛날 숭고한 자욱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인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세여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원수님께서 서계신 삼지연못가의 그 자리가 바로 수십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전적지답사단 성원들에게 백두산은 자신의 고향이라고 말씀하시며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수백만리 혁명의 길이 저 백두산과 잇닿아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백두산을 무심히 볼수 없다고, 자신께서는 오늘 삼지연못가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굳게 다진 맹세대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영원히 충정으로 받들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은 아닌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며 철석으로 다지신 결심과 의지가 있어 백두산밀영고향집은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한 영 민

불멸의 글발들을 되새길 때면

우리는 지금 만경대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수수한 벼루앞에 서있다.

해방후 처음으로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을 담아 불멸의 글발 《**김일성장군만세!**》를 쓰신 뜻깊은 벼루,

사연깊은 그 벼루의 먹으로 《지원》의 글을 쓰신 김형직선생님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기시고 《조선독립》이라는 위대한 글발을 남기시며 다지신 맹세대로 조국의 해방을 안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쌓으신 우리 장군님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있어서 조국은 온넋을 바쳐 사랑할 가장 귀중한것이였다.

《**김일성장군만세!**》라는 글발속에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김일성장군만세!**》, 이 글발과 더불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같은 헌신으로 흘러온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에 얼마나 많은 애국의 글발들이 새겨졌는가.

대대로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이 나라의 열렬한 애국자들의 세계에서 애국의 큰뜻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가렬처절하던 나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과 안녕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 쓰신 편지는 수령님은 곧 조국이고 승리이고 미래이며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인민의 행복이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쓰실수 있는 애국충정의 불멸의 글발이였다.

조국에 대한 이런 열렬한 사상감정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품》, 《축복의 노래》와 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였으며 그토록 불같은 애국의 신조를 격조높이 노래하신것이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학습장의 질을 가늠해보실 때에도 《내 나라》라는 세 글자로 자신의 고결한 웅지를 피력하신 위대한 장군님,

《내 나라》!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하루, 한 시각도 잊지 않으시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계신것이 바로 내 나라, 내 조국이였다.

어떻게 하면 내 조국을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 강국으로, 인민이 세상에서 제일 잘사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는가 하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차넘친 생각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글을 쓰시여도 이렇듯 깊은 내용을 담은 《내 나라》라고 쓰신것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의 로고를 바치신것이였다.

애국을 한생의 정치리념으로 삼으시고 삶의 순간순간을 애국으로 수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기에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던 그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우리 조국을 기어이 부강번영하는 나라로 만드실 의지를 굳히신것이다. 피눈물속에 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아가자고 친필서한을 보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한자한자가 글자로가 아니라 진하디진한 애국의 피방울로 안겨오는 이 친필서한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돌이켜보면 혁명의 1세들로부터 우리 말을 갓 배우기 시작한 유치원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뜻과 믿음이 어린 친필을 받아안았다.

인민군군인들과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소년학생…

백두령장의 담력과 배짱, 애국의 참뜻이 어린 친필을 가슴마다에 천연암반마냥 새겨넣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조선인민군 군관 박용철의 8형제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입대한 새 세대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의 미더운 군인들에 의해 오늘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원쑤들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되였다.

당은 동지들을 믿는다는 친필을 받아안은 탄부들도, 산울림주인공들처럼 나라의 훌륭한 역군이 되기를 바란다는 친필을 받아안은 제대군인들도,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친필을 늘 심장속에 새겨안고 사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도 조국의 번영을 위한 길에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친필은 단순한 글발이 아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 누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받드는 길에서 자기의 더운 피와 온넋을 다 바칠것을 바라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부이고 믿음이며 후손만대가 잊지 말고 빛내여가야 할 **김정일**애국주의의 영원한 메아리이다.

그래서 오늘도 만경대고향집의 벼루와 더불어 위대한 선군령장의 애국의 한생을 안아보며 사람들 누구나 우리 장군님처럼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 장군님처럼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의지를 굳히는것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외국방문의 나날에도

절절한 그리움을 안으시고

조국은 곧 수령이며 조국의 품은 인민들의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하는 수령의 품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인가 외국방문의 길에 계실 때였다.

어느 한 나라의 수도에 도착하신 날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행일군들에게 낯설은 땅에 와서 자신께서 느끼는 첫 소감도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시면서 젖어드는 심정을 터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 참으로 조국이란 말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키군 한다고, 조국의 품은 수령님의 품이고 수령님의 품은 어버이품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을 잠시라도 떠나면 이 말의 참뜻을 더욱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것 같다고 크나큰 의미를 담아 말씀하시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조국은 곧 어버이수령님이시였고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바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였다.

력사의 모진 광풍을 헤치며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그이의 참된 전사, 제자들은 조국이란 무엇인가를 심장으로 깊이 새기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숭고한 조국관을 심장에 안고 선군조선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며 그이의 세련된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번영할 래일을 그려보시며

조국의 번영을 위한 헌신을 진정한 애국으로 간주하시며 자신을 다 바치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어느해 7월말 외국방문의 렬차행군을 이어가시는 속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카시아나무에 대한 과학자료를 보시였다.

떠나온 조국산천을 그려보시며 과학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아카시아나무는 잘 자라는 나무이기때문에 산에 심으면 인차 수림이 우거지게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우월성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였다.

내 나라, 내 조국의 미래를 뜨겁게 안으시고 외국방문의 달리는 렬차에서도 조국산천을 보다 아름답게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잊지 못할 그날 하루빨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뜻을 가슴깊이 새기며 일군들모두가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언제나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이 땅의 모든것을 소중히 마음에 안고계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조국애가 있었기에 사회주의강성국가에로 향한 오늘의 대통로가 활짝 열려진것 아니랴.

본사기자 림 정 호

새로운 시대어 《마식령속도》는 인민군대에 의하여 더욱 빛난다

완공의 날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마식령스키장 군인건설자들

전반적인 건축 및 시설물공사를 끝냈다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전반적인 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스키장의 문주와 대화봉정점을 비롯한 여러 개소에 자리잡은 휴식장들과 눈포용저수지들, 직승기착륙장과 수십동의 종업원살림집 및 편의봉사건물, 유치원과 탁아소, 스케트봉사건물, 삭도조종실과 변전소들, 다리를 비롯한 수십개 대상의 건축 및 시설물공사가 결속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애국의 호소문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에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으로 훌륭히 완공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할 일념에 충만된 군인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의지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세계적인 스키장을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안겨주어 세상만복을 다 누리게 하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그 과업을 인민군대에 통채로 맡겨주시였으며 지난 6월에는 애국의 호소문을 보내주시여 올해안으로 마식령스키장을 완공할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하늘보다 높은 사랑과 믿음을 폐부로 절감한 군인건설자들은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울 충천한 기세로 스키장건설성과를 비상히 확대하였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시공단위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호텔과 대화봉정점에 있는 스키출발선구역의 휴식장, 직승기착륙장과 삭도건설을 비롯한 대상건설을 립체적으로 밀고나가는 한편 모든 공사가 공정별, 날자별로 어김없이 수행되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군인건설자들이 간직하여야 할 정신력의 근본핵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문의 구절구절을 뼈와 살로 새긴 건설지휘부 일군들은 정치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면서 위훈창조에로 군인대중을 이끌었다.

정치부의 일군들은 공사장마다에서 정치사업을 싸우는 군대맛이 나게 공세적으로, 화선식으로 힘있게 벌리는 한편 사회주의경쟁을 잘 조직하고 모든 군인건설자들이 혁명적군인본때, 일당백의 군인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게 하였다.

조선인민군 서국욱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부대가 맡은 수십개 대상의 공사과제를 원만히 수행하는 모범을 보이였다.

부대의 지휘관들은 시공단위중에서 많은 공사량을 맡은 현실조건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군인건설자들을 이끌어 맡겨진 전투과제를 일정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결과 스케트봉사건물과 종업원살림집, 연유공급소를 비롯하여 부대가 맡은 수십개 대상의 건물 및 시설물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성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단숨에의 정신으로 맡겨진 과제수행에서 빈말을 모르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호텔합숙건물과 차고, 눈포용저수지와 가열장건물을 비롯하여 부대가 맡은 공사대상들은 방대하였다.

부대의 지휘관들은 어려운 공사조건이 제기될 때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는 길에서는 그 어떤 불가능도 있을수 없다는 철의 신념을 안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배심있게 짜고들었다.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여러가지 앞선 공법을 련이어 받아들이고 기계화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사량이 아름찬 호텔합숙과 가열장건물공사를 빠른 속도로 다그치면서도 그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조선인민군 신기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해발고가 높은 산정에서의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대화봉정점에 있는 스키출발선구역 휴식장과 여러 건물 및 시설물공사를 빠른 속도로 다그쳐 끝냈다.

《마식령속도》창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을 높뛰는 심장마다에 새기며 조선인민군 오병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산악같이 일떠섰다. 이들은 삭도정류소와 수백m구간의 암거공사, 종업원살림집과 스키장문주를 비롯한 여러 대상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혁명적군인본때, 일당백의 군인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조선인민군 리철훈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맡은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조선인민군 김효남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맡은 눈포용저수지공사도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공사과정에 물동수송을 맡은 조선인민군 오현주소속부대의 화물자동차운전사들도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물동수송이자 건설속도라는 것을 깊이 자각한 이곳 전투원들은 불비속을 헤치며 전시수송을 보장하던 전화의 용사들처럼 순간도 마음의 탕개를 늦추지 않고 산세험한 령길을 오르내리며 집중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서 창조된 눈부신 성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문을 받아안고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최후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불타는 12월에 들어선 지금 군인건설자들은 마식령스키장건설을 올해안으로 기어이 완공할 불같은 일념을 안고 지대정리와 원림형성, 삭도와 눈포용시설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전경서

경쟁의 불길속에 이룩된 성과

얼마전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서는 시공단위들의 사회주의경쟁총화가 있었다.

경쟁총화에 참가한 건설지휘부와 여러 부대의 지휘관들은 지나온 나날에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킨 과정을 돌이켜보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불길을 지펴주신 사회주의경쟁의 우월성과 정당성, 그 생활력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과 정치일군들은 공사장마다에서 정치사업을 싸우는 군대맛이 나게 공세적으로, 화선식으로 힘있게 벌리며 사회주의경쟁을 잘 조직하여 모든 군인건설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로 피를 끓이며 마식령스키장건설전투에서 혁명적군인본때, 일당백의 군인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지휘부의 정치부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문을 피끓는 가슴마다에 새기고 사회주의경쟁조직과 총화 및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정치부에서는 정치사업, 공사실적, 후방사업, 규률확립으로 조항을 나누고 월별, 순별 전투목표를 세우게 하였으며 공정한 평가기준밑에 경쟁을 추진시켰다.

조선인민군 서국욱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마식령속도》창조의 앞장에서 번개쳐 내달리며 맡겨진 공사과제들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꼈다.

부대정치부에서는 전투적이고 호소성이 강한 표어와 구호들, 이동식속보판과 붉은기들을 마련하여 전투장의 곳곳에 기동성있게 전개하였으며 정치사업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결과 부대가 맡은 수십개 대상공사를 훌륭히 완공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은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부대정치부에서는 새로운 시대속도창조의 열쇠를 사회주의경쟁에서 찾고 군인건설자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진동식모래채와 혼합기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창안, 개조하고 보여주기, 경험교환회를 여러차례 진행하여 공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게 하였다.

조선인민군 신기철소속부대에서도 경쟁의 불길은 활활 타올랐다.

부대정치부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지도일력과 사회주의경쟁도표, 영예게시판, 연필화작품소개판 등을 갖추어놓고 해발고가 높은 곳에 위치한 건물 및 시설물들에 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도록 이끌었다.

조선인민군 오병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도 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전투장마다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사회주의경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정치부일군들의 정치사업에 고무된 군인건설자들은 맡은 건설공사를 원만히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조선인민군 리철훈소속부대와 김효남소속부대의 지휘관, 정치일군들도 경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건설자들이 마감공사에서 혁명적군인본때, 일당백의 군인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경쟁의 불길은 물동수송을 맡은 조선인민군 오현주소속부대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경쟁열풍으로 군인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킨 결과 스키장건설장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대혁신, 대비약이 창조되였다.

여러 휴식장과 방대한 규모의 눈포용저수지들, 호텔합숙건물과 직승기착륙장, 편의봉사건물, 종업원살림집들, 삭도조종실들과 스케트봉사건물을 비롯한 전반적인 건축 및 시설물들이 자태를 드러내였다.

본사기자

맡은 공사과제 마감단계에서 추진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에서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맡은 공사과제를 마감단계에서 결속지으며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이제 남은 공사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마음속탕개를 늦추지 않고 총공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마무리를 잘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벌려 마식령스키장건설을 올해안으로 무조건 끝내자!〉, 이것이 마식령스키장건설에 떨쳐나선 군인들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공사를 다그치면서 부대가 힘을 넣은것은 건설물의 질보장이였다. 호텔합숙건물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자!

이런 자각을 안고 부대지휘부의 일군들은 건축물의 질을 최대로 높이였다.

길윤철동무를 비롯한 부대의 지휘관들이 앞채를 메고 힘차게 내달리며 군인건설자들을 이끌었다. 호텔합숙건물의 전투현장에 몸을 잠근 부대의 지휘관들은 설계의 요구대로 건물을 산골맛이 나게, 자연환경에 어울리게 훌륭히 건설하기 위해 깊은 사색을 기울이였다. 외벽과 내벽, 복도와 침실 등 합숙건물의 요소요소에서 산골맛이 나게 하면서도 이곳에서 일하게 될 관리성원들의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공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부대의 지휘관들은 공정별로 작업을 할 때마다 보여주기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공사의 질적수준을 높이였다.

타일붙이기를 할 때에도 그랬다. 건설경험이 풍부한 군관들로 돌격대를 뭇고 일정한 구간의 타일붙이기를 손색이 없게 해놓았다. 타일사이의 간격과 높이가 일매지게 하는데 힘을 넣어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이를 통한 보여주기가 진행되고 그 모범이 일반화됨으로써 건물의 타일붙이기가 자그마한 흠도 없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외장재바르기를 할 때에도 부대의 지휘관들은 추운 날씨조건에 맞게 보온대책을 앞세우면서 중단없이 작업이 진행되도록 이끌었다.

부대정치부에서는 정치사업을 싸우는 군대맛이 나게 공세적으로, 화선식으로 힘있게 벌리며 군인건설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지휘관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었다. 건물의 층마다 방송기재들을 설치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와 혁명가요들이 끊임없이 울려퍼지게 함으로써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정치부에서는 마식령스키장건설과정에 로력적위훈을 세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을 드리고 값높은 평가를 받은 부대의 여러 군인들을 내세워주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도 잘하였다. 영웅적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의 사진과 함께 그들의 투쟁이야기를 담은 직관선전물을 갖추어놓고 모든 구분대의 군인건설자들이 하루사업과 결부해보면서 량심의 총화를 짓게 하였다.

정치부의 일군들은 앞채를 메고 공사속도와 질을 보장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설비와 자재도 확보해놓았다.

정치부의 책임일군이 직접 평양시와 원산시를 비롯한 여러곳을 다니며 양생에 필요한 설비들을 구해왔다. 이로써 강추위속에서도 마감공사를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

호텔합숙건물대상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설계와 시공을 잘하고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흠잡을데 없는 건축물, 표본으로 만들기 위해 부대의 지휘관, 정치일군들은 창조적사색을 끝없이 펼치였으며 헌신의 땀도 아낌없이 뿌리였다.

부대에서는 이렇게 많은 건설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이들은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계속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과감한 공격정신을 발휘

조선인민군 서국욱소속부대에서

방대한 대상건설을 위한 거창한 창조의 뢰성이 울리던 마식령전역에 현대적인 스키장의 면모가 확연한 자태를 드러냈다.

흰눈덮인 스키주로들과 산골맛이 나게 꾸려진 호텔 및 숙소와 휴식장들, 도시부럽지 않은 종업원살림집과 탁아소, 유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건설물들이 훌륭히 완성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올해안으로 무조건 건설하여 마식령지구에 사회주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방대한 스키주로닦기로부터 전반적인 대상공사가 동시에 추진된 마식령전역에서 창조적위훈의 숨결은 어떻게 고동친것인가.

완공의 날이 다가올수록 조선인민군 서국욱소속부대의 장병들은 보람찼던 공사의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지난 반년 남짓한 기간에 맡아 수행한 건설대상은 30여개에 달한다. 그 하나하나의 건설물들은 육체적힘의 한계를 모르고 공격정신으로 일관된 이곳 전투원들의 불굴의 헌신성을 말없이 전하고있다.

—마식령전역은 온갖 원쑤들과의 치렬한 대결장이다.

오직 이 하나의 신념과 의지만이 건설장에 차고넘치였다.

부대아래 김창호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맡은 규모가 큰 눈포용저수지공사의 나날에 전투의 낮과 밤이란 따로 없었다.

사람도 발붙이기 힘든 험한 산중에서 세멘트와 골재 등 수백㎥의 공사자재가 필요할 때 이들은 그 어떤 기계수단을 리용할 방도를 찾지 않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일념을 안고 지휘관, 병사들은 불사신마냥 달라붙어 운반로선을 개척하고 돌격로에 뛰여들었다.

무거운 골재마대를 메고 비내리는 산비탈길을 톺아오르던 나날에 위훈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린 병사들과 질통과 맞들이마다에 한사람이 두몫, 세몫씩의 흙을 담고 대오의 앞장에서 헌신한 지휘관들,

횡포한 자연의 도전과 어려운 공사조건에서도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저수지공사기일을 계획보다 20여일이나 앞당겨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지난 10월부터 건설장의 기후조건은 달라졌다.

해발고가 높은 곳에는 눈이 내려쌓이고 산기슭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시작되였다. 하지만 그 어떤 불리한 공사조건에서도 군인건설자들의 달아오른 가슴은 식을줄 몰랐고 진격의 길에서 주저나 답보도 몰랐다.

단숨에의 공격정신이 곳곳에서 발휘되였다. 김경히소속부대가 맡은 스케트장과 봉사소건설과정에 1천여㎥의 골재가 요구되였다. 백여리밖에서 실어와야 했다.

이때에도 불가능이란 없었다. 단 이틀만에 건설장가까이에서 골재원천을 찾아낸 부대의 장병들은 많은 로력과 연유를 절약하면서 공사기일을 훨씬 줄이였다. 부대아래 여러 단위의 군인건설자들도 규모가 큰 가열장주변의 옹벽쌓기와 건평이 수백㎡에 달하는 공업용수뽐프장건설을 비롯한 10여개의 대상건설을 한달 남짓한 기간에 추진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 모든 자랑찬 결실이 결코 흐르는 시간과 더불어 절로 창조된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시고 우리 당이 중시하는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말아하는것을 인생의 제일 큰 영광으로 간직한 부대의 지휘관, 병사들이기에 오직 전진만을 아는 공격전의 기수로 자랑떨치였다.

흰눈덮인 스키주로들과 삭도조종실, 눈포용저수지들과 오수 및 상수시설을 비롯하여 수십개의 건설대상을 맡아 수행하는 과정에 부대의 장병들은 10여차례의 단계별사회주의경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당의 요구라면 산악도 통채로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이런 병사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해 마식령지구에서는 머지않아 인민들이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지원철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는 군인건설자들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타이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방코크

타이왕국 국왕

부미볼 아둘리야데즈페하

나는 페하의 생일과 타이왕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2(2013)년 12월 5일 평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캄보쟈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평양 12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방문하여온 촌 하이 주조 캄보쟈왕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참가하였다.

당선전일군들은 사상전선의 기수이다

온 나라 강산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흐르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선전선동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35돐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67(1978)년 12월 6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문헌이며 특히 우리 당선전일군들이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다. 로작에는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뿌리빼고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뿌리뽑으며 우리 당선전선동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철저히 전환하기 위하여 근기있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는 최대의 금물이다. 사상사업은 그자체가 고도의 창조적인 사업이다. 대중의 심장마다에 불을 달고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추동해야 하는 사상사업에서 천편일률식이나 만능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지금 우리 동림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대단히 좋으며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로 하여 군에서는 모든 사업이 잘되여나가고있다. 군안의 그 어디에서나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신뢰심과 충정의 열정이 뜨겁게 분출되고 당정책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이 모든 성과의 비결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사상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나간데 있다.

사상사업을 개선해나가는데서 군당위원회가 중시한것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을 옳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근기있게 조직진행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으로 무장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당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학습은 혁명가의 첫째가는 의무이다. 학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의 진수와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된다.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만을 알고 당정책관철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견결한 투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기본열쇠를 학습에서 찾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우리는 학습을 회수나 건수를 채우고 검열이나 받는 실무적사업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을 사상정신적으로 수양하고 단련해나가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으로 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항일혁명투사들처럼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구애됨이 없이 학습을 정상적으로 꾸준히 하도록 하고 개별학습과 집체학습, 강의와 토론, 정기학습과 집중학습을 잘 배합한것도 우리가 당사상사업에서 실효를 거둘수 있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이와 함께 학습정형과 인식상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운 결과 우리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당의 사상과 방침대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혁명적인 기풍이 확고히 세워졌다. 우리 군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자연흐름식수도화를 실현하고 전기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수백정보에 달하는 토지를 정리하여 해마다 알곡생산을 늘여나가고있는것은 다 학습을 통하여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접수하였기때문이다.

사상사업을 개선해나가는데서 군당위원회가 중시한것은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내용은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면할수 없으며 실효성을 높일수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지난 기간 사상교양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적극 벌려왔다. 군에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고 읍지구를 비롯한 20여개 단위들에 영생탑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립하였으며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과 교양마당을 훌륭히 꾸려놓음으로써 군안의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와 령도업적이 깊이 심어지게 하였다. 또한 군연혁소개실과 군계급교양관, 인민군렬사묘참관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중요계기들마다 불멸의 꽃전시회와 사진전람회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행사들을 조직하여 당사상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갔다.

특히 우리는 중요한 건설과제가 제기되고 영농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선전선동의 집중공세로 성과를 거두고있다. 힘있는 직관선동과 예술선동, 방송선전뿐아니라 가두선전대활동, 순회강연을 비롯하여 사상사업의 모든 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고있다. 방대한 작업량으로 하여 오랜 기일이 걸려야 한다던 읍지구 하수망공사와 도로포장, 십여개 하천들에 대한 정리와 장석쌓기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모내기와 가을걷이를 비롯한 영농작업들을 제철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은것은 힘있고 박력있는 선전선동사업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금 우리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참신하고 기동적이며 지칠줄 모르는 선전선동사업으로 하여 그 어디나 약동하는 기상으로 끓고있는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다.

사상사업을 개선해나가는데서 군당위원회가 중시한것은 다음으로 초급선전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간것이다.

사상사업을 당의 의도대로 진행하는데서 초급선전일군들의 책임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가르쳐주신대로 초급선전일군대렬을 잘 꾸리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는 당에 대한 충실성이 높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되였으며 대중의 신망을 받고 책임성과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로 초급선전일군대렬을 꾸렸다. 그리고 주, 월별로 학습강사의 날, 강연강사의 날, 선동원의 날, 5호담당선전원의 날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들의 수준을 높이고 모범적인 강사와 선동원들을 널리 소개하였으며 좋은 경험들을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강습과 보여주기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강연방법도 배워주어 초급선전일군들의 실무능력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초급선전일군들이 잘 준비되니 모든 사상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되고 그 위력은 거창한 실천투쟁속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초급선전일군들의 선봉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현대적미감에 맞는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이 새로 건설되고 수십정보의 키낮은사과나무밭이 조성되였으며 군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해나갈것이다.

동림군당위원회 비서 서상현

나는 군인가정의 딸이다

김형직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최전연섬마을학교의 교원으로 자원진출한 김정일청년영예상수상자 조봄향동무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그 어느 나라에도 우리 청년들처럼 당과 혁명에 충실한 청년들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청춘은 무엇으로 값높이 빛나는가?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김형직사범대학 수학학부를 졸업하고 서해의 최전연섬마을학교의 교원으로 자원진출한 조봄향동무의 모습에서 찾아보게 된다.

조봄향동무는 23살, 평양에서 나서자랐다.

이러한 그가 어떻게 되여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랑하는 수도 평양을 떠나 최전연섬마을학교의 교원으로 자원진출하게 되였는가.

나를 부르는 파도소리

조봄향동무는 군인가정의 외동딸로 태여났다.

태여나 그가 눈에 익힌것이 아버지의 군복이였다. 우리 글을 배우면서 그가 어머니에게 처음 물은것이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렬사증을 보며 렬사증이란 무엇인가 하는것이였다.

어머니 리옥화녀성은 이러한 그를 어렸을 때부터 군인가정의 참된 딸로 키우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명절날, 뜻깊은 기념일이면 그를 데리고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며 어린 가슴에 티없이 순결한 충정의 마음을 심어주었다. 원군길을 떠날 때에도, 특류영예군인의 가정을 찾을 때에도 그를 데리고갔다. 봄향이가 소학교에 다닐 때부터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일지를 만들어놓고 《로동신문》과 텔레비죤에서 보도되는 현지지도소식을 일지에 꼭꼭 적어두며 가슴에 새기게 하였다.

어느날 감나무중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녀성해안포병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며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이 텔레비죤에서 방영되였을 때였다.

텔레비죤화면에서 눈길을 못떼던 봄향이가 《어머니, 난 이제 크면 해안포병이 될래.》라고 하였다.

그러자 리옥화녀성은 《넌 정말, 며칠전엔 장군님께서 해군부대를 찾으신 소식이 방영되자 해병이 되겠다고 하고 또 언젠가는 항공부대를 찾으신 장군님께서 비행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모습을 보며 비행사가 되겠다고 하더니…》라고 하며 웃음을 지었다. 그때 아버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선시찰의 자욱을 따라 자기를 세워보는 딸의 그 모습이 대견하고 기특하여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왜 그러오. 비행사도 되고 해병도 되고 녀성해안포병도 되겠다는것이 얼마나 좋소. 군인가정의 대를 이어 군대가 되겠다는데… 난 정말 기쁘구만.》

그때부터 조명준동무는 사회주의건설장에서 집에 들리는 날이면 봄향이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건설전투를 벌리던 이야기며 장군님결사옹위의 길에서 한목숨바친 영웅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밤깊도록 들려주군 하였다.

봄향이는 군대를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극성이였다. 가정에서 원호물자를 마련하거나 명절날 특류영예군인의 집을 찾아가기 위해 준비할 때면 제손으로 토끼곰, 오리곰을 만들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손풍금을 타며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읊어보며 준비하였다.

그러한 봄향이를 보며 언제인가 조명준동무가 안해에게 《저 이악쟁이 봄향이가 사내라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면 한생토록 군복을 입고 꼭 큰일을 할것 같은데…》라고 하였다. 그 말에 봄향이가 새침해졌다.

《아버지, 두고보세요. 저도 할아버지들과 아버지처럼 꼭 군복을 입는걸.》

《그런데 군복을 입었다가 제대되면 어쩐다?》

《그럼 군관의 안해가 되지요뭐.》

너무도 뜻밖의 그 말에 아버지는 《허허…》하며 웃고말았다.

그때부터 봄향은 밤늦게 공부를 하다가도 생각에 잠기군 하였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인가정의 대를 꿋꿋이 이어갈수 있을가?)

그러던 지난해 8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텔레비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를 시찰하신 소식이 보도되고있었다. 그는 텔레비죤화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7hp의 작은 목선을 타시고 풍랑을 헤치시며 적들과 총구를 맞대고 있는 최전연의 섬방어대를 찾으시다니…)

그는 저도모르게 눈굽이 젖어옴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태여난지 6개월된 정항명어린이를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해빛같은 미소를 보내주실 때에는 두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문득 피눈물의 언덕에서 맞이한 새해의 첫아침 땅크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결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되새겨졌다. 그리고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며 경상유치원의 어린이들,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장에서 소년단원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던 원수님의 모습이 눈물겹게 안겨왔다. 생각할수록 그처럼 병사들을 사랑하시고 그처럼 어린이들을 고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끝없이 달리는 마음을 진정할길 없었다.

그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이 드리운 밤하늘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작은 목선을 타고 헤치신 섬방어대의 바다마냥 가슴에 안겨들었다.

순간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쾅—》하고 가슴을 치는것만 같았다.

서해의 파도소리가 그를 부르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으신 섬방어대, 우리의 어린이들이 포성을 들으며 사회주의조국을 지키는 투사들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는 섬방어대…

(그렇다. 군인가정의 딸이고 사범교육의 전당에서 배우는 내가 설 자리는 바로 최전연섬마을학교이다. 거기서 내 한생 섬초병들과 함께 평양과 잇닿은 서해의 배길을 성벽처럼 지키며 우리의 미래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제일전우, 제일동지로 키워가리라.)

평양아, 나의 제자들을 기다려다오

조봄향동무는 최전연섬마을학교의 교원으로 떠나기에 앞서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안고 만수대언덕으로 올랐다. 장한 딸의 앞길을 축복해주시듯 해빛같은 미소를 보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영상을 우러르며 삼가 꽃다발을 드린 조봄향동무는 만수대언덕에서 사랑하는 수도 평양의 전경을 한눈에 굽어보며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못 잊을 추억들이 가슴가득 갈마들었다.

인물곱고 노래를 잘 부르는 조봄향동무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있어 소학교시절부터 평양학생소년궁전 음악소조에서 피아노도 손풍금도 배웠다. 음악과 함께 문학에도 뛰여난 소질이 있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우리 교실문학상, 아동문학상장도 받았고 가사도 쓰고 작곡도 하여 선생님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아버지장군님께 가요집 《꿈이야 깨지 말아》와 함께 편지를 올리여 기쁨을 드리였을 때에는 온 학교와 마을이 꼬마작곡가가 나왔다고 기뻐하며 그를 축복해주었다.

그러던 그가 중학교 3학년때였다. 수학교원이 봄향이의 어머니를 찾아왔다.

《봄향이는 문학과 음악에 남다른 소질이 있지만 천성적으로 수학과 물리과목에서 다른 학생들이 따를수 없는 뛰여난 두뇌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봄향이를 꼭 평양콤퓨터기술대학의 콤퓨터학원에 보냈으면 합니다.》

며칠후 수학교원은 또다시 봄향이의 부모를 설복하였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봄향이에게 말하였다.

《봄향아, 아버지장군님의 병사는 노래도 잘 부르고 손풍금도 잘 타고 콤퓨터도 척척 다루며 막히는데가 없어야 한다. 콤퓨터학원에 가자꾸나.》

그리하여 봄향은 콤퓨터학원에 입학하게 되였고 그후 김형직사범대학 수학학부 수재반에서 공부하게 되였다. …

조봄향동무의 머리에는 몇해전 림종을 앞두고 봄향이가 대학을 졸업하면 아버지처럼 군복을 입게 하던지, 최전연초소에 서게 하여 아버지장군님께 꼭 기쁨을 드리는 장군님의 참된 딸로 키워달라고 절절히 부탁하던 그의 어머니의 말이 되새겨졌다. 이제 와서 그의 결심을 듣게 되니 훌륭한 부모의 슬하에서 티없이 순결한 마음을 안고 성장한 제자의 모습에 눈굽이 찌릿해옴을 금할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금 물었다.

《어머니도 안계시고 외동딸인 동무가 홀로 계시는 아버지를 두고 평양을 떠나 정말 최전연섬마을학교의 교원으로 가겠단 말입니까?!》

《저는 군인가정의 딸입니다.》

그 말에 봄향이가 얼굴에 웃음을 담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 제가 만일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이처럼 심각하게 말하지 않았겠지요? 아버지, 생각나세요?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에게 저 이악쟁이 봄향이가 군복입을 아들이면 좋겠다고 한것 말이예요.

아버지, 저는 지금껏 그것을 잊은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전연섬초소에서 군인가정의 대를 꿋꿋이 이어가리라 이미 지난해에 결심했던거예요.》

아버지의 눈언저리가 붉어지더니 물기가 번뜩이였다.

《고맙다. 그러나 너에게 꼭 부탁하고싶은것이 있다. 나는 네가 교원이기 전에 마음만은 군인이 되길 바란다. 군인이란 우리의 조국이시고 운명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날 아버지는 많은 말을 해주었다. 군인가정에서 나서자랐다고 군인정신의 체현자가 되는것이 아니라고, 군인선서는 하지 않았어도 매일, 매 순간 군인의 자각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조국이 사랑하는 군인가정의 참된 딸이 될수 있다고 절절히 당부하였다.

다음날 조봄향동무는 수학학부의 부문당비서를 찾아갔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 최전연섬마을학교의 교원으로 자원진출하려고 한다는 그의 말에 부문당비서 장금수동무는 놀랐다.

장금수동무의 머리에는 몇해전 림종을 앞두고 봄향이가 대학을 졸업하면 아버지처럼 군복을 입게 하던지, 최전연초소에 서게 하여 아버지장군님께 꼭 기쁨을 드리는 장군님의 참된 딸로 키워달라고 절절히 부탁하던 그의 어머니의 말이 되새겨졌다. 이제 와서 그의 결심을 듣게 되니 훌륭한 부모의 슬하에서 티없이 순결한 마음을 안고 성장한 제자의 모습에 눈굽이 찌릿해옴을 금할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금 물었다.

《어머니도 안계시고 외동딸인 동무가 홀로 계시는 아버지를 두고 평양을 떠나 정말 최전연섬마을학교의 교원으로 가겠단 말입니까?!》

《저는 군인가정의 딸입니다.》

다음날 조봄향동무의 결심은 수학학부와 대학당조직에 반영되였다.

그의 학급동무들은 졸업시험이 끝나는 날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였다. 학급동무들은 한자리에 모이였다. 못 잊을 추억이 더듬어졌다.

조봄향동무는 대학에 입학한 첫날부터 매일 아침 일찌기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는 사업을 한 다음 교실을 깨끗이 정돈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일과로 여기였다. 과정안에 따라 왕재산, 회령혁명사적지를 답사할 때에도 사적지관리사업에 필요한 관리도구와 물자들을 안고 가던 그였다.

동무들을 사랑하고 집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그의 진정은 때없이 학급동무들을 울리였다. 그는 늘 작은 수첩을 가지고다니였다. 거기에는 대학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급동무들의 집주소와 생일 그리고 키와 옷호수, 신발문수, 좋아하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 적혀있었다. 어머니처럼 다심한 그의 사랑과 정에 받들려 학급동무들은 해마다 조봄향동무가 성의껏 차린 생일상을 마주하군 하였다.

몇해전 학급의 한 녀동무가 갑자기 수술을 받고 입원하게 되였다. 그때 조봄향동무는 어머니를 잃고 제손으로 밥을 해먹으며 대학에 다니였다. 그러나 그는 10여일동안 매일 하루세끼 자기 손으로 그의 식성에 맞는 영양음식을 만들어 입에 떠넣어주며 녀동무를 회복시키였다. 몸이 약하여 감기에 자주 걸리는 학급의 한 남동무를 위해 산꿀을 구해온 때도 있었다. 어느해 겨울 한 녀동무에게 자기의 새 털신발을 안겨주어 그를 울린적도 있었다. …

한 녀동무가 가까스로 격정을 누르며 말하였다.

《누구나 평양을 그리워하며 평양에서 살고싶어하는데… 넌 정말…》

《나는 결코 평양을 떠나는게 아니야. 난 마음속에 평양을 더 소중히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제일 가까이로 가는거야.》

그리고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였다.

《동무들에게 꼭 부탁하고싶은것이 있어. 나는 이제 최전연섬마을학교에서 나의 온넋을 다 바쳐 우리 원수님께서 제일 고와하시는 군인가족들의 아이들을 한명한명 평양을 지켜갈 믿음직한 성돌이 되게 훌륭히 키워 평양의 대학으로 보내겠어. 그러니 내가 키운 제자들을 우리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실력가들로 더욱 억세게, 참답게 키워줘.》

지난 11월 26일, 조봄향동무는 너무도 놀랍고 꿈같은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전연섬마을학교의 교원으로 자원진출할것을 결심한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던것이다.

격동적인 그 소식은 온 대학을 끓게 하였다.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아버지는 딸의 가슴에 빛나는 **김정일**청년영예상 메달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며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최전연섬마을학교의 교원으로 가기도 전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처럼 …언제나 이 은정을 잊지 말고 꼭 보답하거라.》

그날 저녁 조봄향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편지에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아뢰였다.

《언제나 그립고 뵙고싶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저는 교원이기 전에 섬초소를 지켜선 병사가 되여 원쑤놈들이 감히 불질하면 섬초병들과 함께 평양으로 가는 서해배길을 목숨으로 지키는 오늘의 월미도영옥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누구보다 더 귀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최전연섬초소학생들의 친언니, 친누나, 친엄마가 되여 제가 맡게 될 학생모두가 최우등생이 되는 날 그리운 **김정은**원수님께 우리 학생들의 최우등성적증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

* *

청춘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 시절이다. 그 청춘시절을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받드는 제일선에서 바칠 때,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조국을 위해 빛내일 때 가장 값높은 시절로 되는것이다.

바로 이런 신념을 지닌 조봄향동무이기에 최전연섬마을학교의 교원으로 자원진출한것이다.

글 본사기자 로 주 봉
사진 본사기자 김 철 우

2013년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및 발표회 진행

2013년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및 발표회가 3일부터 5일까지 농업과학원에서 진행되였다.

알곡작물육종분과, 알곡작물재배분과, 식물보호 및 농업화학분과, 토양비료분과, 공예, 과수, 잠업, 남새분과, 수의축산분과로 나뉘여 열린 전시 및 발표회에는 농업부문 과학연구, 교육기관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내놓은 10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제출되였다. 또한 새 품종 알곡작물, 혼합살초제를 비롯한 80여종에 200여점의 전시품들이 출품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농업생산을 늘이고 농업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나누었다. 5일에 있은 페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군들, 농업부문 과학연구, 교육기관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참가하였다.

심사결과에 의하면 새로운 품종의 논벼와 사과 등의 재배기술, 감자와 콩의 소출을 더욱 높이는데서 이룩된 성과를 비롯한 30여건의 연구자료들이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계영삼 농업과학원 원장이 발언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슴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농업과학연구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정구경기가 끝났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정구애호가들의 깊은 관심속에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정구경기가 5일에 끝났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당의 대중체육방침을 받들고 평시에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련마한 정구기술을 잘 보여주었다.

이번 경기에서는 화학공업성, 유원지총국, 사회과학원, 만수대창작사가 조에서 각각 1등을 쟁취하였다.

국가계획위원회,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대외건설지도국이 각각 2등을, 경공업성,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외국문출판사, 경흥지도국이 각각 3등을 차지하였다.

태권도전당에서 5일에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언급하고 모든 일군들이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정구경기는 일군들이 온 나라에 체육열기를 고조시키는데 앞장서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패기와 열정에 넘쳐 뜻깊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신념의 노래 높이 부르며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천만군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는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통하여 당원들과 탄부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아침독보시간과 종업원들이 모이는 계기들을 리용하여 노래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들끓는 갱막장들에 들어간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탄부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에 대한 노래해설모임을 격식없이 조직하군 하였다.

이에 고무된 탄부들은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심장으로 부르며 석탄생산에서 날에날마다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연전행

꾸바혁명무력절 57돐에 즈음하여 꾸바공화국대사관 무관 연회 마련

꾸바혁명무력절 57돐에 즈음하여 후안 미겔 가르씨아 몬따노주조 꾸바공화국대사관 무관이 5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되였다.

꾸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꾸바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파키스탄에 가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출발

파키스탄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의회회의 제6차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김완수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5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전송하였다.

재일조선학생 소년예술단 도착

김윤선 오사까조선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이 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더 높이 발휘되는 원군기풍

황해남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은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를 친혈육과 같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일념안고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원군기풍을 더 높이 발휘하고있다.

강령군인민들이 백두의 원군전통을 꿋꿋이 이어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군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올해에도 군산림경영소 부원 리일용, 리영복부부 그리고 강령소학교의 박홍주학생을 비롯하여 군의 많은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이 인민군대를 성의껏 원호하였다.

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첫물 남새와 과일을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었고 삼봉리의 한 관리일군의 가정에서는 수십마리의 돼지를 길러 초소의 군인들에게 보내주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였다.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뉴대가 더욱 두터워지고있는 속에 얼마전 군상업관리소를 비롯한 군내기관,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성의껏 마련한 많은 원호물자를 10여대의 화물자동차에 실어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옹진광산의 로동계급도 자기들이 마련한 원호물자를 초소의 군인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전투정치훈련에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해주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학생소년들도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굳은 결의를 다지며 원군기풍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시사회급양관리소에는 원군사업을 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린 로동자 김순애동무를 비롯하여 원군미풍열성자들이 많다. 그들의 모범을 따라 원군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올해에도 원군사업을 통이 크게 진행하였다.

원군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여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해주기초식품공장 종업원들과 룡당1동 47인민반 박영심, 서애동 63인민반 구성희동무를 비롯한 근로자들도 있고 룡당소학교 김윤일, 부용초급중학교 림대혁, 서해주초급중학교 김현일학생을 비롯한 학생소년들도 있다.

원군사업을 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린 도육아원 로동자 김명주동무는 보답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원호물자를 한가지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옹진군녀맹원들속에서 원군열의가 더욱 고조되고있다.

이곳 녀맹조직들에서는 원군을 최대의 애국으로 삼고 삶의 자욱을 아름답게 새겨가고있는 녀맹원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있다.

배천군과 신천군을 비롯한 다른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학생소년들도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원군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특파기자 리 승 철

선천탄광 지배인 박명칠동무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일군

평안북도 중소탄광관리국 선천탄광은 최근년간 석탄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탄광에서는 매월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계속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여기에는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탄부들의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을 앞세우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드세게 해나가고있는 지배인 박명칠동무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대중을 열렬히 사랑하며 따뜻이 대해야 합니다.》

10여년전 이곳 탄부들은 화물자동차적재함이 넘쳐나게 많은 량의 후방물자를 싣고온 한 일군을 맞이하였다.

선천군의 어느 한 단위에서 일하다가 탄광지배인으로 새로 임명되여온 박명칠동무였다.

《우리 함께 손잡고 본때있게 석탄생산을 내밀어봅시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박명칠동무의 발걸음은 하루일을 마치저녁이면 탄부들의 집집에로 이어졌다. 살림형편은 어떤가, 땔감은 넉넉한가,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것은 없는가를 하나하나 알아보며 진정을 다해 풀어주는 그의 마음은 탄부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탄부들은 석탄생산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섰다.

석탄생산실적이 종전에 비해 1.5배, 최고 2배까지 뛰여올랐다. 불비하던 운탄선로도 개조되고 저탄장도 크게 확장되였다. 박명칠동무는 석탄생산조직과 지휘를 보다 빈틈없이 짜고들면서 탄부들의 생활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몇해전 태양절을 맞으며 상반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을 때였다. 지배인 박명칠동무는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탄부들과 안해들에게 안겨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탄부들을 제일로 아끼고 가장 훌륭하게 내세우려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요. 우리 이것을 잊지 말고 탄부답게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갑시다.》

이런 마음을 안고 박명칠동무는 지난해에도 큰물피해를 입은 탄부들의 집을 본래보다 더 훌륭하게 꾸려주도록 하였다. 안해와 함께 부모잃은 제대군인의 가정을 찾아 그의 자식의 돌생일상도 성의껏 차려주면서 혈육의 정을 부어주었다.

박명칠동무는 탄부들의 로동안전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휴계실은 물론 한증칸이 달린 목욕탕도 잘 꾸려놓고 가정에 생긴 크고작은 문제들도 모두 맡아 풀어주며 탄부들을 위해 진정을 바치고있다.

최 종 규

실험실습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고있다.
—평성의학대학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장자강인민유원지, 인풍민속교재원 새로 건설

자강도에 장자강인민유원지와 인풍민속교재원이 새로 일떠섰다.

강계시의 장자강기슭에 건설된 인민유원지에는 배구장, 롱구장, 정구장, 소축구장, 바드민톤장, 로라스케트장, 운동기구장과 놀이터, 휴식터, 청량음료점, 꽃매대 등이 갖추어져있다.

유원지와 함께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과 력사문화유적들의 모형을 앉힌 민속교재원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문화지식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며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도에서는 강계시의 장자강기슭에 유원지와 민속교재원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단계별목표와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공사첫시작부터 힘찬 전투를 벌렸다.

자강도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1만 8 000여㎥의 부지정리와 기초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 방대한 량의 막돌과 혼석을 마련하여 공사를 다그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인민들의 행복을 꽃피우는데 청춘을 바쳐갈 일념안고 돌격대원들은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공사를 질적으로 끝냈다.

새로 건설된 장자강인민유원지와 인풍민속교재원은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찾아와 대중체육활동을 벌리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로 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태양의 불멸의 업적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뜨거워지는 12월이다.

민족의 어버이를 너무도 뜻밖에 잃고 몸부림치는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머리우에 하늘도 주먹같은 눈덩이를 뚝뚝 떨구며 소리없는 곡을 터뜨리던 피눈물의 그날로부터 어언 2년이 되여오는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의 영상을 우러르며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심을 금치 못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민족분렬의 치욕의 력사를 끝장내고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실 애국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자주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신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정력적인 령도로 6.15통일시대를 펼치시고 대외관계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으며 그 길에서 참으로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으신 업적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이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수령님의 조국통일업적을 길이 빛내이시였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이였고 유훈이다.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불변의 지침으로 틀어쥐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신 길로만 나아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은 통일위업실현의 만년토대이고 고귀한 밑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여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실 불타는 의지를 안으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령도의 길을 정력적으로 이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이 통일운동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우실 드팀없는 신념을 지니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스러운 선군령도의 길에 나서시여 애국헌신의 자욱을 아로새기시였다. 그 거룩한 령도의 나날속에 력사의 땅 판문점에 불멸의 친필비가 세워지고 수도 평양의 입구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거연히 솟아 조국통일을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고있다. 한없이 고매한 인덕으로 민족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시고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을 따뜻이 안아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펼쳐주신 민족애의 력사를 천세만세 빛내이도록 한 원동력이였다. 정녕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충정과 헌신이 있어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줄기찬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투철한 통일의지와 담대한 결단, 광폭의 도량을 지니시고 6.15통일시대를 펼치시여 자주통일의 밝은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였다.

20세기 중엽에 시작된 민족분렬의 비극사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숙망이다.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자면 정당한 리념과 탁월한 령도가 있어야 한다. 민족의 진로를 밝혀주는 정확한 리정표가 있고 그 실현을 위한 옳바른 령도가 있을 때에만이 민족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이 담보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통일위업의 전환적국면을 안아오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새 천년대의 분수령에서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되는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였으며 우리민족끼리리념을 근본정신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조국통일운동이 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가 열리게 되였으며 북남관계에서는 놀라운 사변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북과 남으로 갈라져 신음하던 우리 겨레가 불보다 뜨거운 혈연의 정속에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치고 분렬의 잡초밭을 뒤엎고 원한의 분계선을 꿰지르며 지맥이 하나로 이어져갔다. 지난 시기 분렬의 장벽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안되였던 통일행사들이 명실공히 민족공동의 행사로 진행되게 되였으며 대화와 협력, 화해와 교류가 대세의 흐름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광폭의 도량과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남녘동포들을 따뜻이 안아 단합의 대오에 내세워주시여 자주통일시대의 전진에 활력을 더해주시였다. 남조선각지를 휩쓴 김정일열풍은 그대로 민족의 탁월한 령도자께 드리는 남녘동포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였다.

자주통일시대의 힘찬 전진속에 또 한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열리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이 열리였다. 이것은 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로고와 애국애족의 헌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높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할수 있는 무적의 군력을 다지시여 평화통일의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문제이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더우기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려는 외세와 괴뢰호전광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는 정세속에서 구걸이나 호소로써는 절대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켜낼수 없으며 평화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강력한 총대로써만 지켜낼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였다. 파도세찬 날바다를 헤치시며 초도의 병사들을 찾으시고 오성산의 칼벼랑길을 한치한치 톺으시며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내외호전광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은 걸음걸음 짓부셔질수 있었다. 우주를 헤가르며 높이 솟아오른 우리의 인공지구위성과 지축을 뒤흔든 핵뢰성은 내외원쑤들의 가증되는 고립압살책동을 산산쪼각낸 징벌의 불벼락이였다. 우리 당이 추켜든 선군의 기치가 있어 우리 공화국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핵보유국으로 세계의 상상봉에 높이 솟아올랐으며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선군의 든든한 보호가 있어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전쟁도발책동이 우심하게 감행되는 속에서도 해내외 온 겨레는 자주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칠수 있었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을 목격하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새겨안았으며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자주통일로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하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거족적행진을 힘차게 다그쳤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총포성없는 사회주의수호전, 민족수호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였으며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거대한 민족사적업적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불굴의 헌신이 있었기에 자주통일위업은 력사의 모진 시련과 광풍을 뚫고 승리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바치신 평생의 로고와 자주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으신 거룩한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한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조국통일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자주통일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여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는 길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이 땅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이 활짝 꽃핀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은 정 철

남조선 각계가 높이 칭송

절세위인의 애국헌신의 한생

세월이 흐를수록 남조선인민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우리 공화국을 만방에 빛내여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새 력사연구회 회원 정진철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5천년래의 민족대국상,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공세, 련이어 덮쳐든 자연재해, 천겹만겹으로 이어진 엄청난 시련을 이북이 이겨낼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때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생사기로에 놓인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려 피눈물의 언덕에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시였고 락원의 길을 여시려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였다.

서울의 한 재야인사는 동료들에게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달리는 야전차를 집무실로 삼으시고 눈바람, 비바람을 다 맞으시며 끊임없는 선군령도로 사회주의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번영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고 찬탄하였다.

녀성단체의 한 회원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앞장에서 나가야 민중이 따라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고 하시며 최전연의 고지들과 전국의 공장, 농촌들을 쉬임없이 찾고 또 찾으시였다고 피력하였다.

통일애국동지회 회원은 한 토론회연단에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와 민중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그분의 선군장정이 있어 이북은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였으며 으뜸가는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되였다.

참으로 국방위원장의 한평생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애국헌신의 력사이다.

이북바로알기회 회원은 글에서 북에 펼쳐진 경이적인 사변은 김정일장군님의 열렬한 애국헌신이 안아온 력사의 필연이라고 하면서 마음속진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이어가신 현지지도로정에 아로새겨져있다.

그분께서 찾으신 단위와 그 포괄령역, 지도하신 분야는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가 없다.

정말이지 천문학적인 수자를 기록하며 끝없이 이어진 초강도강행군이였다.

장군님의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 이북에 번영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한 글들에서 《오늘 북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며 경제강국을 향하여 돌진할수 있는것은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받았기때문이다.》, 《김정일령수께서는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생사기로에 놓였던 공화국의 운명을 고수하셨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어버이장군님을 잊지 못해 터치는 남조선인민들의 경모의 정은 선군혁명위업을 드팀없이 계승하시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으로 승화되고있다.

고려대학교의 한 교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갈데 대해 밝히심으로써 선군정치를 이어가실 립장을 표명하시였다고 하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뜻과 념원은 그분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에서 거세차게 벌어지는 각계층의 반《정부》투쟁으로 궁지에 몰린 괴뢰패당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온갖 발악적책동을 다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2월 5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55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특대형관권부정선거범죄행위를 규탄하는 각계층의 반《정부》투쟁이 정당, 단체, 종교계 등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더욱 거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우리 공화국 사회단체들과 국제기구 및 단체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극도의 궁지에 몰린 괴뢰패당은 내외의 규탄을 모면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지지성원을 그 무슨 《내정간섭》으로 걸고들면서 여론을 오도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괴뢰국무총리와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과 《새누리당》은 《북의 대남선전공세로 대선불복투쟁이 고조되고있다.》고 하면서 각계층의 《박근혜퇴진》투쟁이 우리의 《지령》에 의한것이라고 고아대고있다.

괴뢰언론들과 어용전문가들도 《북이 반정부투쟁을 부추기는 선동을 계속하고있다.》느니, 《전면적인 대남비난공세를 펴고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남남갈등을 리용해 박근혜정부를 압박하고 대북정책전환을 촉구하려는 의도》라고 떠들어대고있다.

그야말로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괴뢰패당이 각계층의 대중투쟁을 우리와 련결시켜 탄압하면서 《내정간섭》을 운운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남조선에서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부정선거규탄과 《박근혜퇴진》투쟁은 온갖 강권과 불법으로 권력을 가로챈 괴뢰보수패당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분노의 분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그 누구의 《지령》이니, 《대남선전공세에 의한것》이니 하고 떠들며 악랄하게 탄압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리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이다.

괴뢰들이 그 누구에 대해 《내정간섭》이니 뭐니 하고 고아대지만 실지로 내정간섭을 하는것은 다름아닌 괴뢰패당이다.

우리의 체제를 헐뜯고 《변화》니 뭐니 하는 불순한 나발을 불어대고있으며 우리의 로선과 정책까지도 악랄하게 시비중상하고있는것이 과연 누구인가.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거들며 인간쓰레기들까지 내몰아 반공화국모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랍치행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는것이 과연 괴뢰역적패당이 아니란 말인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괴뢰패당은 애당초 그 누구에 대해 《내정간섭》을 입에 올릴 체면이 없다.

괴뢰패당이 우리에 대해 《내정간섭》이요 뭐요 하는데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나라들에서와 로마교황청까지도 저들의 선거부정행위와 《종북》소동을 비난하고있는데 대해서는 왜 《내정간섭》이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가 하는것이다.

결국 괴뢰들의 《내정간섭》궤변은 《종북》소동을 정당화하고 날로 고조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운을 거세해보려는것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괴뢰패당이 우리를 걸고 《종북》광란을 일으키며 정의와 민주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는데 대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동족으로서 남녘동포들의 의로운 투쟁에 계속 지지성원을 보낼것이다.

괴뢰패당은 당치도 않은 《내정간섭》을 운운하기 전에 남조선 각계층과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력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극도의 통치위기, 심화되는 정치적혼란

남조선에서 각계의 《정권》퇴진투쟁이 고조되는 속에 괴뢰패당이 극도의 궁지에 몰리우고있다.

련이어 폭로되고있는 부정선거내막들, 민심을 기만하는 선거공약파기행위 등으로 하여 역적패당에 대한 각계층의 분노는 무섭게 폭발하고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은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여야사이의 대립은 날로 첨예해지고있다.

력대로 남조선에서 여야간의 관계가 순탄해본적이 한번도 없었지만 현 《정권》하에서 그것은 특히 더욱 첨예하다.

얼마전 괴뢰집권자는 이를 눅잦힐 심산으로 《국회》에 나타나 취임후 처음으로 그 무슨 《시정연설》이라는것을 하였다. 그런데 그는 남조선에서 초점으로 되고있는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을 비롯한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온통 미사려구와 자화자찬, 변명과 거짓공약들만 잔뜩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야당을 얼려 저들의 반역정책이 담긴 각종 법안들과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켜보려고 꾀하였다.

《시정연설》이라는것을 통해 괴뢰집권자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체질,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는 반역적기질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자 야당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는 치솟는 격분을 터뜨리면서 집권자의 《시정연설》을 《대국민사기극》, 《책임전가의 극치》, 《지독한 불통연설》 등으로 강하게 비난해나섰으며 이를 계기로 여야간의 정치적대결은 한층 격화되고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공안통치의 신독재》를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보다 강도높은 투쟁에 나서고있다.

민주당은 정보원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집권자의 사과, 책임자처벌, 특검실시를 주장하고 《국회》밖에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는 등으로 강하게 맞서나가면서 여기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자세를 취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정보원대선개입사건에 대한 특검도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였다.

남조선 각계가 정보원대선개입사건에 대한 특검실시와 집권자사퇴를 요구하며 반《정부》투쟁도수를 계속 높이고 여야사이의 대결이 첨예화되면서 남조선정국은 완전한 혼란상태에 빠져들고 괴뢰패당은 《국정》운영을 할수 없을 정도의 곤경에 처하여있다.

괴뢰정기국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으며 이로 하여 집권자가 내놓은 주요법안들과 새해예산안심의도 늦어졌다. 괴뢰들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법정처리기한까지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완전마비상태에 들어갈수 있다고 아우성쳤다. 또한 민주당이 집권자가 내세운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등에 대한 《국회》임명동의안에 완강히 반대해나서고 정보원대선개입사건수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현 괴뢰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강하게 주장해나섬으로써 박근혜는 장관임명과 관련하여 골머리를 앓았다.

이런 속에 지난 11월 28일 《새누리당》패거리들이 야당을 배제한채 날치기로 《국회》에 감사원장후보자임명안을 상정시킨것은 야당의 커다란 반발과 분노를 자아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처사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락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괴뢰정치권이 끊임없는 여야대결로 가늠할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었다고 보도하였다.

괴뢰집권층내부에서도 현 위기사태의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알륵과 갈등이 심화되고있다. 괴뢰집권자가 정치적혼란의 책임을 야당과 반대파들에게 넘겨씌우는 《시정연설》을 한 후 각계의 반《정부》기운이 더욱 거세여지자 집권층내부에서는 《오히려 야당에 공세의 기회만 주었다.》, 《하지 않은것보다 못하다.》는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특히 《새누리당》패거리들은 《국정을 청와대가 다 맡느냐.》고 하면서 《더이상 청와대의 심부름군노릇을 하지 않겠다.》, 《박근혜는 야당과의 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들이대고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얼마전 괴뢰검찰이 부정선거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격화되는데 겁을 먹고 추가적으로 공개한 정보원패거리들의 선거개입자료가 집권층내부의 집안싸움을 더욱 부채질하고있다.

지난달 괴뢰검찰은 정보원직원들이 지난 선거과정에 여론조작을 위해 낸 모략글이 무려 121만건이나 된다고 폭로하였다. 이것은 지금껏 알려진것보다 20여배나 많은 량이다. 지난해의 《대통령》선거가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사실이 다시금 여지없이 립증되게 되였다. 이로 하여 청와대, 정보원, 법무부, 검찰, 《새누리당》패거리들사이에 서로 물고뜯는 개싸움이 더욱 치렬해지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 괴뢰국무총리 김황식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민중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로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였다.

인민들의 날로 고조되는 대중적인 반《정부》투쟁과 이로 하여 심화되고있는 집권세력의 통치력마비와 위기사태는 민심을 잃고 파멸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있는 반역패당의 가련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인민을 등진 파쑈독재자들의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일본의 조소에 벙어리시늉을 하는 속내

일본의 눈에 남조선은 과연 어떤 모양으로 비껴있는가.

얼마전 일본의 최대시사주간지인 《슈깡붕슈》가 《박근혜의 아주머니외교》라는 글을 실어 물의를 일으켰다. 글은 현 괴뢰집권자가 《악담을 퍼뜨리는 아주머니외교》를 하고있다고 조롱하면서 그를 《바보》라고 지칭하였다. 지난 11월 14일에도 《슈깡붕슈》는 《남조선의 급소를 찌른다》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남조선을 《어리석은 지역》이라고 야유한 일본수상 아베의 발언을 싣고 괴뢰외교부 장관 윤병세를 간신이라고 조소하였다. 이것을 단순히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다소 어성버성해진 《불편한 관계》, 일본특유의 야스꺼움의 표현이라고만 볼수는 없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남조선보다 더 심각한 주변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감히 남조선처럼 하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다. 그런데도 괴뢰들은 《아베의 두 얼굴》이니, 《깔보는 발언》이니 하는 외마디비명에 그칠뿐 일본의 천대를 조용히 받아들이고있다.

예로부터 제 대접은 제가 받는다는 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들에는 《요즘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면 어리석다는 소리 들어도 싸다.》, 《아베가 우리를 무시하는 리유가 뭐겠느냐? 딸랑이친일파들이 〈정권〉을 잡고있으니 민중까지 무시당하고있다.》는 울분에 찬 목소리들이 차넘치고있다.

당연하다. 그런 수치와 모욕은 일본에 대한 괴뢰들의 뿌리깊은 굴종적인 자세와 사대매국적추태가 불러온 필연적결과이다.

독도문제에서의 괴뢰들의 태도부터 보자.

지금 괴뢰패당은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움직임에 대해 《항의》니, 《도발중지》니 하며 제법 얼굴을 붉히지만 그것은 서푼짜리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있은 《국회》국정감사에서는 괴뢰외교부가 독도업무대응기본지침이라는데서 독도를 일본이 주장하는 《다께시마》라는 이름과 함께 표기하는것을 허용하라고 해외대표부들에 내리먹인 사실이 폭로되였다. 괴뢰당국은 재미동포들이 독도관련행사를 개최할 때 괴뢰외교대표부 부속건물을 행사장으로 제공하지 말며 대사관직원도 참가하지 않는다는것을 독도업무대응기본지침에 쪼아박았다. 나중에는 미국에서의 독도관련민간행사를 저들이 파탄시킨 내용을 성공적인 실례로 소개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라 괴뢰외교부패거리들은 남조선에서는 물론 해외에서의 독도관련행사들을 사사건건 따라가며 방해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에서의 괴뢰들의 자세는 더욱 비굴하다. 그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것도 없다. 최근 괴뢰외교부가 2014년에 열리는 어느 한 녀성관련회의에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특별의제로 상정시키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일본의 과거범죄를 덮어버리려 한 사실만 가지고도 일본상전에 대한 괴뢰패당의 굴욕적자세를 아는데는 충분하다.

괴뢰들의 이런 비굴한 망동에 기세가 오른 일본극우보수정객들은 성노예문제가 어떤것인지 《일본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할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느니, 《할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남조선을 향해 《당신들도 그런 행위를 하였으니 반성하라.》고 제편에서 호통치고있다.

민족을 망신시키는 괴뢰보수패당의 매국적추태의 원인은 단순히 그들의 친일굴종적인 본성에만 있는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중요하게는 독도문제나 일본군성노예문제 등에서 일본과의 갈등을 어떻게 하나 피하면서 상전과의 반공화국공조를 강화하려는 반민족적흉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괴뢰당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조건부적이라고는 하지만 정식 인정한것은 그에 대한 응변적인 립증이다. 얼마전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는 미국을 행각하면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은 보통국가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권리중 하나》라고 떠벌이였으며 괴뢰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라는데서 《큰 틀에서 접근》이니 뭐니 하며 일본상전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재침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에 있어서 집단적자위권행사의 첫 실행대상은 다름아닌 조선반도이다. 그런데도 남조선괴뢰들은 동족대결야망에 사로잡혀 일본과의 반공화국공조에만 기승을 부리면서 그의 조선재침책동의 길안내자, 앞잡이로 서슴없이 나서고있다. 동족을 해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굴욕도 무릅쓰고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것이 괴뢰패당의 더러운 속심이다. 그들이 자기들을 대신집 강아지만큼도 여기지 않으면서 이제는 집권자까지 조롱하는 일본에 대해 온전한 항변 한마디 하지 못하고 끙끙 속을 앓고있는 리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일본반동들에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깡그리 팔아먹으면서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현 괴뢰집권세력에 대해 온 민족은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효 진

사건의 진상을 가리우려는 집권자를 규탄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이 11월 25일 부정선거개입사건의 진상을 가리워보려고 발악하고있는 괴뢰집권자를 규탄하는 재미동포의 글을 실었다.

글은 지금 재미동포들속에서 지난 남조선 《대통령》선거를 권력이 개입한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며 박근혜퇴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박근혜가 《대통령》선거때 나타난 부정선거사건을 외면하고 이에 방해로 되는 사람들을 마구 탄압하며 그 책임에서 어떻게 하나 벗어나보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사건의 진상을 가리워보려는 남조선집권자의 추태는 철면피의 극치라고 글은 강조하였다.

항의운동 선언

불교, 천도교, 카톨릭교를 비롯한 남조선의 광주지역 5대종단 대표들이 11월 28일 광주에서 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 그들은 현 집권자의 사퇴를 요구한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의 시국미사이후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명백히 종교탄압이라고 단죄하였다.

5대종단의 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하면서 시국미사를 《종북》으로 몰아대는 당국의 탄압을 묵과하지 않을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동의 권리보장을 반대하는 여당에 항의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전국녀성로동조합, 녀성로동자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로동의 권리보장을 반대하는 괴뢰여당에 항의하여 11월 28일 《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새누리당》 대변인이라는자가 26일 청소업에 종사하는 녀성로동자들의 고용문제해결과 관련한 새로운 안에 대해 그것이 로동3권을 보장해주고 그렇게 되면 파업을 할수 있다고 야단을 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그자가 로동의 권리를 무시하고있음을 보여주는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하였다.

민중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그 고통을 당연시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자가 로동의 권리를 무작정 반대해나선것은 로동자들이 단결되는것을 두려워하기때문이라고 까밝혔다.

그들은 《새누리당》 대변인이 자기의 망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고용문제해결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정권》교체를 주장

남조선의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원로 박창신이 얼마전 《CBS》방송과의 대담에서 괴뢰집권자의 퇴진을 주장하였다.

그는 남조선에는 법도 없고 정의도 없고 폭력만 있으며 이로 하여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억지만 란무하는 어지러운 사회가 되였다고 개탄하였다.

제일 분노를 자아내는것은 《종북》몰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민중의 삶을 보호해줄 대신 오히려 특정자본만을 위하고 로동자, 농민들의 생존권투쟁을 《종북》으로 몰아대며 탄압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자본을 살리고 민중을 죽이는 《정권》을 교체하는것은 절실히 중요한 문제라고 언명하였다.

정보원, 군부, 보훈처까지 개입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엄청난 부정사건에 대해 옳바른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정권》교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서 현 집권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일장군님은 뛰여난 군사적예지를 지니신 정치의 대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속에 그 어디에서나 행복의 웃음과 노래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국제사회계는 우리 인민이 미제의 그 어떤 핵공갈과 침략책동에도 끄떡없이 맞받아나아가며 보란듯이 강성국가건설을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부러움과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국력은 방대한 령토나 인구수, 경제력에 의해 규제되는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비록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그 어떤 역경에도 끄떡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꿋꿋이 나아가면서 종합적국력과 필승의 기상을 높이 떨치고있다.

그 비결은 바로 필승의 보검인 위대한 선군정치의 거대한 위력에 있다.

이에 대하여 로씨야의 한 작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세계는 지난 60년간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총포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승리하였다. 총포성없는 승리였다. 세계는 총포성이 울리는 3년간의 전쟁에서 이기고 세계평화를 지킨 조선의 승리에 감탄하였고 총포성이 울리지 않은 60년간의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이기고 세계평화수호에 거대한 기여를 한데 대해서도 탄복을 금치 못하고있다.

…지나온 력사는 침략의 총소리가 들려온 다음에야 두손에 총을 잡게 하는 정치, 침략의 총탁이 나라의 대문을 들부신 다음에야 총과 대포를 만들게 하는 정치였다. 나라의 망국사도, 평화의 파괴도 여기로부터 시작되였던것이다.

세계정치사는 조선의 새로운 조국수호의 정치, 세계평화수호의 정치인 선군정치의 큰 종소리로 하여 깊은 잠에서 깨여났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60년대에 벌써 시작하시고 구현해오시였으며 1990년대에 전면적으로 펼치신 선군정치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것을 국사중의 국사, 제일국사로 내세우시였다. 군사선행, 참으로 옳은 주견이시다. 그분께서는 군사선행을 조국수호의 근본담보, 침략과 전쟁을 막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보시였다. 정치사의 대발견이였다.》

그렇다.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혁명원리에 기초하여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내세우심으로써 사생결단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고 강성국가의 려명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야말로 사회주의의 생명선, 백전백승의 위력한 무기, 인류의 반제자주, 평화위업수행의 만능의 보검이다.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정치신조이다. 총대우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는 김정일장군님의 지론은 오늘 사회주의군사강국으로 위용을 떨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통해서도 명백히 증명되고있다.

진보적인류는 누구라 할것없이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위업과 반제투쟁의 승리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칭송하며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이다. 공화국은 여러차례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한사코 외면하면서 오늘까지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대조선압살과 전쟁책동에 매달리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보검은 바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신 선군정치이다.》

에질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은 선군정치는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불멸의 기치이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더불어 조선은 선군으로 빛을 뿌리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총서기는 선군은 위대한 백두령장들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인류에게 남기신 고귀한 유산이라고 격찬하였다.

로씨야작가동맹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선군정치는 자주와 존엄의 상징이며 평화수호의 기치이다.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조선은 최상의 국력을 떨치며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고있다.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마식령속도〉가 창조되고 영웅서사시적인 력사의 기적이 일어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부강번영하는 제일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조선인민의 성과를 기쁘게 생각한다.》

벌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는 선군정치는 조선인민의 커다란 긍지이고 자랑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이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이룩한 승리는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승리는 조선인민과 같이 나라의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고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들의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국제김정일상리사회 서기장인 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지금 조선은 세계가 공인하는 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다.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가장 훌륭히 계승해나가시는 그이께서는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도 수호하고 경제강국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고계신다. 이것은 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세계는 김정은각하의 세련된 령도밑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조선을 커다란 관심속에 주시하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 계시기에 조선의 평화는 굳건히 수호될것이며 조선인민은 일심단결하여 보다 휘황한 미래를 안아올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감복한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대의원이였으며 로씨야련방 공산당원이였던 이완 쥬다까예브는 사망하기 전까지 집필한 자기의 론문 《력사에 대답하다》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는 전쟁이 없는 미래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특별한 장검이라고 생각한다.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이 군력강화를 제일국사로 내세워 선군강성국이 된다면 제국주의의 횡포무도한 총성을 제압하게 될것이며 새 사회건설의 평화로운 마치소리를 더 높이 울리게 될것이다.》

세계가 한결같이 칭송하는 위대한 선군정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더욱더 굳건히 계승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와 자주, 평화의 수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이다.

김철룡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최근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우리 주변나라들을 행각한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신문 《빠뜨리오뜨》, 인터네트잡지들인 《마르12》, 《한베르 져널》, 《렘취취》, 인터네트TV 《크라스노예 젤레비제니예》, 먄마통신, 네팔신문 《네팔 투데이》, 타이신문 《방코크 포스트》, 웰남의 인터네트통신들인 브이엔엑스프레스, 전 찌,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 우크라이나 인터네트신문 《오벡찌브나야 가제따》는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전문 또는 요지로 전하였다.

로씨야의 로스또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우크라이나 크림주체사상연구협회, 쏘베쯔끼 쩬뜨르,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인터네트홈페지들도 대변인대답을 올렸다.

《봄의 도시에 진달래 만발하였네》

중국 《인민일보》의 글

중국의 《인민일보》 1일부가 《봄의 도시에 진달래 만발하였네》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라 평양예술단의 공연을 소개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봄의 도시 곤명에 초겨울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록음이 짙고 해빛이 따스하게 비치였다. 더구나 이곳에 조선의 《진달래》까지 활짝 피여났다.

곤명 해경회당의 무대에 오른 민족가무 《진달래》는 조선의 평양예술단이 공들여 창작한것이다.

공연은 관중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커다란 감명을 불러일으켰다.

신문은 지난 11월 곤명에서 진행된 제13차 아시아예술축전에서 평양예술단의 《진달래》가 기본공연으로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중국과 외국의 관중들에게 조선민족예술의 고유한 특성과 순수한 맛이 나는 가무를 보여주기 위하여 평양예술단은 성대한 문화잔치를 마련하였다.

구름이 몽게몽게 피여오르는 푸른 하늘이 배경에 펼쳐지면서 무용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가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소고춤》, 《장고춤》은 장단이 박력있어 사람들의 흥취를 돋구어주었다.

노래 《꽃파는 처녀》가 무대에 울려퍼지자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로 호응하였다.

중국의 여러 세대가 귀에 익은 이 노래를 들으며 성장하였다.

신문은 민족정신을 구현한 예술을 발전시켜나가는것을 리념으로 삼고있는 평양예술단은 민족적색채가 짙고 시대감이 강한 예술작품들을 창작, 공연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한 공연관람자는 조선의 노래는 친근감을 준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조선예술가들의 공연도 끊임없이 새로와지고있다, 정교한 복장과 세련된 률동, 부드럽고 온화한 무대예술은 관중들로 하여금 아름다움과 희망에 대한 조선인민의 지칠줄 모르는 열망을 느끼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번 축전조직위원회의 한 사람인 운남성 문화청장은 조선의 예술이 이번 축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예술축전에서 조선의 문화예술의 매력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였다.

문화예술은 나라의 정신적면모를 보여준다.

조선의 예술은 민족적정서가 강할뿐아니라 생활적이고 현실적이다.

중조친선은 문화교류를 통해 새 세대들에게 이어질것이다.

당보 및 당간행물발행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한 중국공산당의 조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가 최근 《당보 및 당간행물발행사업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신문 및 간행물의 규정위반발행을 엄금할데 관한 통지문》을 하달하였다.

통지문은 각 지역과 각 부문이 당보 및 당간행물발행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인식한데 기초하여 당보를 비롯한 중앙의 중점적인 간행물발행사업을 잘 조직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당보 및 당간행물의 이름으로 혹은 행정권력을 리용하여 기타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하는것을 엄금할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대응

로씨야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대응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나라에서는 2020년까지 10기의 신형대공미싸일종합체 《C-500》을 군대에 취역시킬것을 계획하고있으며 이 사업은 2년내로 시작된다고 한다.

이 신형대공미싸일종합체가 《C-400》과 다른 점은 대륙간탄도미싸일도 요격할수 있다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항공우주방어군 반항공담당 부사령관은 신형대공미싸일종합체 《C-500》이 로씨야국경에 접근하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대한 대답으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스크바와 중부공업지구들만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의 미싸일방위도 조직할수 있다, 이것이 미국의 체계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다고 강조하였다.

웰남인민회의 헌법수정안 승인

웰남인민회의가 11월 28일 인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헌법수정안을 승인하였다.

11개 장과 120개 조항으로 된 헌법수정안은 공산당의 령도적역할을 재확인하고 국영부문을 경제발전의 중심으로 다시금 내세우고있다.

또한 립법, 행정, 사법부문들사이의 권한과 기능, 련계를 보다 정확히 확정하고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높은 농도의 방사성물질 검출

일본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부근에서 방사성물질이 계속 검측되고있다.

최근 도꾜전력회사는 발전소의 북쪽에 있는 관측용우물에서 β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이 L당 91만Bq의 높은 농도로 검출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β선을 배출하는 방사성물질은 7월에 바다쪽에 위치한 다른 우물에서 최고수치로 기록되였던 90만Bq을 초과하였다.

일자리축감

도이췰란드의 전기통신업체인 도이췌 텔레콤회사가 2일 일자리축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체에서 약 4 000명의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한다.

교통사고

잠비아의 루안그와지역에서 11월 30일 달리던 뻐스가 강물에 빠져 16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남아프리카의 클레르크스도르프지역에서는 2대의 소형뻐스가 충돌하여 12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부상당하였다.

나라의 경제발전성과에 대해 언급

라오스주석 쭘말리 싸이냐쏜이 11월 29일 공화국창건 38돐에 즈음한 외교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성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올해에 라오스가 제7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2011-2015년) 중간총화를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총화기간 나라의 사회정치적안정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민족경제가 안정된 속도로 장성하였다고 밝혔다.

총화기간 빈궁세대들의 수가 10.57%로 감소되고 2015년까지 10%이하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달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고 하면서 라오스는 앞으로도 평화, 자주, 친선, 발전, 협조의 대외정책을 변함없이 고수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침략자들의 아성을 짓부셔버릴것이라고 언명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2일 나라의 한 애국자를 추모하는 모임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인민은 침략자들의 아성을 재가루로 만들어버릴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서한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란인민의 위업과 존엄이 악독한 외국침략자들로부터 수호될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용맹하고 열정에 불타는 이란인민은 애국자들의 넋을 이어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서한은 강조하였다.

에이즈와의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

보쯔와나대통령 쎄레쩨 카마이안 카마가 2일 세계에이즈의날 기념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모든 주민들이 에이즈와의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난 수십년동안 위생선전사업을 적극 벌려 에이즈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고 치료사업을 강화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에이즈전파를 막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2016년까지 에이즈비루스감염을 완전히 없앨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모든 주민들이 정부의 노력에 합세해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부당한 행위 비난

나이제리아주재 팔레스티나대사가 11월 29일 팔레스티나인민과의 세계련대성의 날을 맞으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부당한 행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집요한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공동체가 팔레스티나령토를 계속 강점하고있는 이스라엘에 경제제재를 가할것을 요구하였다.

팔레스티나의 국가적지위를 인정할데 대한 유엔결의채택을 방해하고있는 미국의 처사를 단죄하고 그는 1967년 중동전쟁이전의 경계선에 기초한 독립국가를 창건하는것은 팔레스티나인민의 빼앗길수 없는 권리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협조

로씨야와 베네수엘라가 11월 28일 원유생산부문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웰남과 스리랑카는 무역, 기술교류, 농업,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여러건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 *

중국과 끼르기즈스딴이 11월 28일 군사분야에서 쌍무협조를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27일 중국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나라들과 경제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50여건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 *

앙골라와 잠비아가 11월 29일 광업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량해각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앞서 28일 이란과 아랍추장국련방은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강화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경제장성

인도네시아에서 3.4분기에 경제가 5.62% 장성하였다.

2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유채씨생산 증대

이란에서 2015년에 끝나는 제5차 5개년경제발전계획기간에 유채씨생산을 늘여 필요량의 35%를 충족시킬 목표를 내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있다.

이에 따라 3월 21일부터 시작된 현 이란년도에 유채재배면적을 12만ha로 늘이였다. 그리하여 유채씨생산량은 지난 이란년도에 비해 70% 증대되였다고 한다.

앞으로 정부는 그 재배면적을 8만ha 또 확장할것을 계획하고있다.

1일 이르나통신이 이에 대해 밝혔다.

국내총생산 장성

인디아에서 올해 4월에 시작된 현 회계년도의 2.4분기에 국내총생산이 4.8% 늘어났다.

11월 29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경제장성목표

필리핀정부가 2014년에 경제를 6.5~7.5%로 장성시킬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11월 28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마약반대투쟁

브라질정부가 11월 28일 마약사용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선전깜빠니야를 선포하였다.

2개월동안 진행되는 이번 깜빠니야기간에 신문과 TV방송들을 통해 마약의 해독성과 마약중독, 밀매를 막기 위한 방도 등을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주민들속에서 반마약투쟁의식을 높여주게 된다.

외부세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립장 표명

스리랑카외무상 쥐.엘.페리스가 2일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인권문제를 걸고 가해지는 외부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자기 나라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국제공동체는 스리랑카의 상황을 평가하는데서 공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국제적기준은 어떤 나라에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 평등하게 적용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오직 스리랑카만이 자기가 나아갈 길을 결정할수 있으며 정부와 인민은 내부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정부는 인권문제 등을 코에 건 서방의 그 무슨 《최후통첩》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범죄

미국의 로스안젤스시에서 11월 27일 40대의 범죄자가 한 살림집에 뛰여들어 총을 휘두르며 2명을 인질로 잡아놓고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한편 최근 오스트랄리아 퀸슬랜드주에서는 비법적인 무기밀매를 목적으로 감추어두고있던 300여정의 무기와 4t의 탄약이 압수되고 3명의 범죄자가 체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에서 집회와 시위

파키스탄의 라호르시에서 2일 미군의 무인기공습을 반대하는 항의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반미구호들을 웨치면서 파키스탄에 대한 공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 *

이스라엘의 네게브사막지역에서 11월 30일 당국의 부당한 계획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당국이 재거주의 명목밑에 약 4만명의 베드윈족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내쫓고 그들의 땅을 강탈하려고 획책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 *

프랑스의 빠리 등 각지에서 11월 30일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집회들이 벌어졌다.

최근 이 나라에서 TV방송을 통해 인종차별편집물이 방영된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집회들에는 반인종주의활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인종주의적편집물이 보편화되는것을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 *

일본 도꾜에서 11월 26일 당국의 부당한 특정비밀보호법안채택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파키스탄에서 반미시위

집회에는 출판보도부문의 많은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강행채택하려는 새로운 법안이 일본인들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천하의 악법으로 된다고 신랄히 비난하였다.

27일 도꾜시민들은 참의원의원회관앞에서 롱성투쟁을 벌리면서 그릇된 특정비밀보호법안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자연피해

이딸리아의 중부와 남부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

2일현재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약 1 500명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한 교통이 혼란상태에 빠졌으며 많은 학교들에서 수업이 중단되였다.

* *

그리스의 뻴레뽀니스반도에서 1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사망자가 나고 살림집들과 농경지들이 파괴되였으며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 *

꾸바의 서부지역에서 11월 30일 폭우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

아바나시에서만도 2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채의 살림집이 무너졌다.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아프리카의 주인은 대륙인민들자신이다

얼마전 남아프리카에서 넬슨 만델라의 자서전적인 영화가 상영되였다.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반대투쟁을 이끈 이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자서전을 영화로 각색한 《만델라 자유에로의 머나먼 길》의 상영이 지난 11월 28일 남아프리카의 영화관들에서 시작되였다. 영화관에 모여든 시민들은 영화를 통하여 만델라와 남아프리카가 걸어온 길을 깊은 추억속에 돌이켜보았다. 영화는 만델라의 어린시절로부터 시작하여 정치활동, 수십년간의 옥중생활을 거쳐 첫 흑인대통령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영화는 이미 남아프리카의 100개가 넘는 영화관들에서 상영되였다고 한다.

인류력사에 또 한돌기의 년륜을 새기며 저물어가고있는 이해의 언덕에서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위해 헌신해온 그의 모습을 마음속깊이 새겼을것이다.

결코 한 인간, 한 나라의 력사가 아니였다.

얼마나 가혹한 수난의 력사를 헤쳐온 아프리카인들인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쟁탈전과 무제한한 탐욕의 희생물이 되여 인간이 인간이하의 고역과 학대를 겪어야 했던 대륙, 가난을 숙명으로 여겨온 사람들이다.

대륙 그 어느 곳의 땅에도 그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스미지 않은 곳이 없다. 그 어느 해변가에도 수천수만의 노예들과 자연부원을 닥치는대로 끌어가던 배고동소리가 울리지 않은 곳이 없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대륙에서는 대국들의 리권쟁탈의 암투가 치렬하게 벌어지고 암흑의 력사가 남겨놓은 분쟁과 내전이 그칠줄 모르고있다.

올해에만도 《협조》니, 《원조》니 하면서 덤벼드는 미국을 비롯한 지배주의세력의 검은 마수가 대륙의 무진장한 자연부원들에 집요하게 뻗쳤다. 야수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포식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제국주의자들은 대륙을 기아와 빈궁, 무지와 몽매의 페허로 만들어버리고도 성차하지 않고있다.

제국주의침략의 력사가 남겨놓은 령토적, 민족적, 종교적모순과 대립도 대륙전체에 불안정을 가져다주어 온 한해 평온한 날이 없었다.

지금 말리와 소말리아, 민주꽁고, 수단, 남부수단, 중앙아프리카 등 나라들에서 전쟁과 분쟁, 마찰이 그치지 않고있다.

하지만 결코 운명을 감수만 하고 불행에 순종만 하는 대륙인민이 아니다.

정치적안정을 위한 투쟁과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꾸준한 탐구와 노력에 의해 대륙의 지위와 영향력은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외부세력의 간섭을 짓부시고 자체의 힘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해 단결과 협조를 부단히 강화해나가고있다.

올해초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는 국제적관심과 기대속에 제20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동맹성원국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개막연설에서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수뇌자회의가 아프리카통일기구(아프리카동맹의 전신)창립 50돐을 맞이하게 되는 해에 열리는것으로 하여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성원국들이 정치적의지를 발휘하여 여러 나라들의 위기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 시기 이룩한 성과를 총화하고 지역분쟁을 해결하며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와 대륙개발에서 서방의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도들이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회의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노력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올해에 들어와 대륙의 위기해결을 위한 방도의 하나로 신속반응무력을 창설하기 위한 문제가 토의된것은 아프리카인민이 거둔 또 하나의 성과로 된다.

지난 5월 에티오피아에서 진행된 제21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서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이 지역안보위기에 대처할 신속반응무력을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외국군대와 외국자본에 대한 아프리카대륙의 의존성을 극복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대륙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과 충돌을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담보를 주고있다.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 결정서에 의하면 신속반응무력은 성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병력과 전투기재, 자금으로 구성된다.

아프리카나라들은 가까운 년간에 10%이상의 경제장성을 이룩할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그것이 실현되면 많은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는 빈궁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외부세력의 간섭과 지배를 물리치고 나라와 인민의 정치적권리와 경제적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넬슨 만델라의 인생을 추억하는 대륙인민들은 깊은 추억속에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고있다.

대륙의 안정과 발전은 그 누가 선사하지 않는다. 지배주의세력은 오히려 대륙인민들이 분렬되여 서로 반목질시하기를 바라고있으며 거기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있다.

대륙인민들이 단합된 힘으로 일떠선다면 대륙의 번영을 위한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수 있으며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갈수 있다.

아프리카의 주인은 대륙인민들자신이다.

본사기자 리철혁

ㄱ-31190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